서울大同窓會報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2005년 10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 월간 | 제331호

발행인:林光洙 | 편집인:孫一根 | 편집주간:許 璉

발행처:서울대학교총동창회 서울 마포구 도화동 16-2

전화:702-2233 | 팩스:703-0755 | ARS:060-604-0011

참여·협력·영광 | www.snua.or.kr

장학빌딩 건립, 동문의 정성을 기다립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는 30만 서울대인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장학빌딩'(동창회관) 건립을 위해 대대적인 모금운동에 나섰습니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 지금의 동창회관 자리에 새롭게 건립되는 장학빌딩의 조감도(右)에서 보듯이 웅장하고 아름다워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이 장학빌딩은 앞으로 우리 동창회의 장학사업과 모교지원, 그리고 동문들의 '만남의 장'으로써 그 역할을 비약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굳건한 터전이 될 것입니다.

이번 모금운동에 참여하시는 출연자에게는 동판부조 설치, 또 출연자 성명이나 아호를 붙여서 각층의 이름을 명명하는 등 별표(3면)와 같이 갖가지 예우와 특전이 주어지며, 장학빌딩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목에 그 이름을 새겨서 장학빌딩 역사와 더불어 영구히 보존, 전시할 것입니다. 그동안 조기출연 등에 힘입어 대망의 장학빌딩 건립 소요자금 총 300억원 가운데 160억원은 이미 확보되었으며 향후 모금목표는 140억원입니다.

뜻 깊고 보람 있는 '장학빌딩' 건립 모금운동에 우리 서울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장학빌딩 건립 모금운동 상세 내용 3면〉

관악춘추

'VERITAS LUX MEA'(진리는 나의 빛)

"뛰어나는 인재들이 다 모여 들어 … 온 누리에 빛을 내는 서울대학교"

현대 사회와 현대 경제의 핵심 자원은 지식(피터 드러커)이라고 설파했듯이, 21세기는 사람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사회입니다. 서울대는 누가 뭐래도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재를 배출한 나라와 겨레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디지털 정보망은 세계를 하나의 마을로 만들었습니다. 국가도, 기업도 세계화의 무한 경쟁 속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습니다. 금세기는 지식의 창출이 곧 경쟁력이고, 성장의 동력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식 창출의 핵심 주역을 서울대인이 아니고 누가 맡겠습니까.

30만 동문들이시여!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모교 발전이 조국의 발전'이라는 말을 되새깁시다.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더 많은 후배를 나라의 동량으로 키우고, 우리가 그동안 누려온 많은 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풀며, 동문들 간의 정겨운 만남의 장과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센터를 만드는 마당에, 서울대인이면 누군들 크고 작은 성의로 장학빌딩 건립에 참여를 마다하시겠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

서울 마포 도화동에 후배 사랑, 모교 사랑, 동문 사랑을 아우르는 전진기지의 건설이 곧 시작됩니다. '장학빌딩'—서울대총동창회관, 지상 19층, 지하 6층, 연건평 6천4백85평의 초현대식 건물은, 세계 속의 대학으로 모교를 발전시키는 지원센터의 기능을 할 것이며 동문과 재학생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동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서울대인의 긍지와 위상에 걸맞게, 후학과 모교 발전을 북돋우고 나라를 섬기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실천합시다. (衛)

만든 사람 논설위원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李炯均, 南仲九, 金鎭銅, 安炳褒, 丘月煥, 宋鎭赫, 金好俊, 洪性萬,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元鎭, 李慶衛, 金鍾勳, 金仁圭, 徐玉植, 李元雙, 高永才, 姜大錫, 嚴基永, 朴時龍, 辛京珉, 朴聖姬, 朴勝俊, 金鎭國 편집장 安興雙 편집부 기자 朴宰亨, 表智媛, 金南柱 광고부장 金千鶴

느티나무광장

주일 미군기지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인천에서는 땍 아녀를 '학살자'라고 규정하고 그 동상을 철거하라는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었다. 주한 미군을 철수하라는 요구도 터져 나오고 '웰컴 투 동막골'이 5백만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 모으는 분위기 속에 일본으로 갔다.

미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는 예상한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우리가 일본을 향해 비난해온 것처럼 일본이 재무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요구하고 있었다.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그랬다. 자위대가 일본 열도 방위를 넘어서 동북아 지역은 물론 중동에서 인도양을 거쳐 동남아, 일본으로 이어지는 해상 수송로 장악까지 상당 부분 미군이 맡아온 역할을 나눠주기를 기대했다. 주일 미국 대사관에서 만난 한 외교관은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해갈 거다. 한국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라도 얻으려면 두 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협박에 가까운 말이 아닌가.

일본은 60년간 평화의 호황이 발돋움을 감춰왔다. 재정적으로는 기대 이상으로 부담을 나누면서도 평화 헌법의 제약을 내세워 군사적 역할 확대에는 임실을 부려왔다. 도쿄에서 만난 한 일본인 안보 전문가는 "일본이 침략을 당하면 미국이 같이 싸우지만 미국이 침략을 당할 때는 일본이 도울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 정찰로서 부담을 느낀 미국이 아시아의 대리인으로 일본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밀고, 헌법 개정을 부추기며, 해외에서 공동 작전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이미 미국 다음의 세계 2위에 우뚝 섰다. 일본 열도는 미국이 가상적으로 생각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을 파트너로 삼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냉전 종식으로 허와 주둔의 명분을 잃었다. 조지 W. 부시가 확대적 전쟁을 내세웠지만 그 역시 퇴색했다고 미군 관계자는 말했다. 일본에서도 미군기지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다. 다만 평화적이란 점만 우리와 다르다. '평화'를 내세우다보니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미군들조차 헷갈리고 있다.

오키나와를 가나 요코스카의 자마기지를 가 봐도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모두 과거 일본군이 쓰던 그대로다. 일본인들은 미군기지 관리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만 결국은 일본군이 사용할 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 정부는 자주 국방을 내세우고,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미군 관계자와 일본 관리·학자들은 "한국은 중국과 일본 어느 편을 들 것이냐"고 물었다. 상황은 우리 희망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싸우면 북한 편을 들겠다는 사람과 미국 편을 들겠다는 사람이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동북아 균형자론과 주일 미군

金 鎭 國
중앙일보 정치부장대우
본보 논설위원

동문칼럼

국립대학교병원도 평준화할 셈인가?

'서울대학교 폐지론'이라는 태풍의 눈이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해 정부에서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구상해 시실상의 서울대학교 폐지를 주장, 논란을 빚더니 최근에는 국회일각에서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을 폐지하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통합하려는 안이 발의될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정부에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보건소와 같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을 발표해 의료계를 경악하게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서울대 의대동창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평생 의료의 현장을 지켜온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료의 후퇴'가 우려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유감스럽게도 '서울대학교 폐지론'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소위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중앙병원을 하나의 지방 국립대병원과 동일시하여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발상은 국가 의료발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오히려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대병원 수준으로 높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국가적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느닷없이 국가 의료발전의 주춧돌을 빼내겠다는 발상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평준화라는 이념에 심취해 무한경쟁시대에 국가 의료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며 국민 건강의 하향 평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다.

河 權 益
(의학57-63)
의과대학동창회 회장

서울대학교병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우리 나라 의학발전을 선도하는 데 크게 기여해 온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지방 국립대병원과 달리 입원환자의 절반이 지방에서 의뢰된 중환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국민이 마지막 희망을 갖고 찾아오는 최후의 병원임을 모르는 국민도 없다.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의료분야 국가경쟁력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의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일인지 1만2천여명의 의대 동문을 대표해 입법발의자에게 묻고 싶다.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의 부처이관 문제도 그렇다. 정부에서 국립대병원을 바라보는 시각과 의료 전반에 대한 기본 인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공공의료확충계획을 보면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도 문제지만 교육 병원인 국립대병원을 동원해 보건소와 같은 역할을 부여하고, 국립대병원 내에 공공의료보건사업부를 설치해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의 감시, 통제권 아래 두겠다는 계획은 누가 봐도 즉흥적이고 비전문가의 정책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립대병원과 국립의과대학의 관계는 '교육-연구-진료'의 분리할 수 없는 기본 연결고리로서 각각의 기능은 의학발전의 심위일체임을 모르고 탁상에서 정책을 결정한 탓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또는 국가중앙의료원 등의 산하에 두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공공의료 강화' 방침에 따라 의학교육기능이 분리될 경우 우리나라 국립 의과대학의 '의학교육의 질'과 '공공의료의 질'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국립대병원의 존재 이유는 의학교육과 연구에 있다. 즉 국립의과대학과 국립대병원의 존재 이유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학교육, 연구분야의 수월성 추구에 있다. 이러한 목표는 강제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학과 대학병원에 부여되는 자율성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며, 강압적이고도 근시안적인 정부의 요구나 규제로 훼손될 수 없음은 역사의 큰 교훈이라 할 것이다.

우리 1만2천여 의대 동문은 의학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데 구심이 되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의학교육, 연구, 진료의 선도 기관으로서 의료분야의 치세대 의료인재의 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중심 축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알 림

제8회 '관악대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많은 후보자의 추천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 상 부 문
참여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력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유무형의 헌신과 봉사로 기여한 동문·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광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 부문 :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 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
   1) 접수마감 : 2006년 1월 31일
   2)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 702-2233·팩스 : 703-0755)
4. 시상시기 :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 (2006년 3월 17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林 光 洙 · 관악대상 운영위원장 孫 一 根

林光洙회장(左)이 孫一根상임부회장에게 장학빌딩 건립기금 50억원을 전달했다.

장학빌딩 건립 모금운동

서울대인은 벽돌 한 장 쌓는 심정으로

장학빌딩 운영 개요

여러분이 출연하는 건립기금은 후배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모교 교수들을 위한 연구 활동비, 동창회 활성화에 활용됩니다.

■장학빌딩의 역할
- 서울대인의 긍지와 위상에 걸맞은 만남의 장
- 세계 속의 대학으로 모교를 발전시키는 지원센터 기능
- 동문과 재학생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동 공간

■장학빌딩 완공 후 기대 효과
- 장학빌딩 완공 시 매년 약 38억원의 순수익 예상
- 수익금은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모교 교수의 연구활동비 및 해외연수비 등으로 전액 사용 예정

모금 개요

■모금 현황
- 회관 건립 소요 자금 총 300억원 중 160억원 기 확보 (동창회 기금 100억원, 임광수 회장 50억원, 홍성대 상임이사 10억원 출연)
- 향후 모금 목표 – 140억원

■모금 방향
- 직접 납부 또는 약정 (5년 분할 납부 가능)
- 1천만원부터 기금장학회 설립 •5천만원부터 독지장학회 설립
- 비용분 출연 가능
- 기부·증여·유증에 의한 출연 환영(현금·예금·부동산·유가증권 등)

■기금 및 특지장학회 설립 내용
- 은행금리 이상의 이자 지급 – 개별 장학금으로 관리
- 출연자가 장학생 지정
- 해외거주 동문 출연 환영 – 출연자가 장학생을 지정(타대생 가능)

모금 참여방법

■약정방법
- 전화접수 : 02)702-2233 •방문접수 : 총동창회 사무실
- FAX접수 : 02)703-0755 •온라인접수 : www.snua.or.kr

■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농 협 1152-01-042470 / 조흥은행 397-01-100736
  •예금주 : (재)관악회
- 지 로 : 회보발송시 첨부된 무정액 지로 이용
- 신용카드 : 홈페이지를 통한 납입
- 자동이체(CMS) : 인터넷뱅킹, 거래은행에 의뢰
- 직접방문 : 총동창회 내방 납입(주식, 부동산 등)

출연자에 대한 예우

□10만원 이상	장학빌딩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각인
□1,000만원 이상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각인 장학빌딩 연회실 및 식당, 회의실 이용시 할인 기금장학회 설립 및 개인별 관리
□5,000만원 이상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각인 장학빌딩 연회실 및 식당, 회의실 이용시 할인 특지장학회 설립 및 개인별 관리
□5억원 이상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각인 장학빌딩 연회실 및 회의실, 예식홀 대관 무료 특지장학회 설립 및 개인별 관리
□10억원 이상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각인 장학빌딩 연회실 및 회의실, 예식홀 대관 무료 특지장학회 설립 및 개인별 관리 층별 동판부조(본인) 설치 및 해당 층을 출연자의 층으로 명명

※ 출연시 세제 혜택

■ 개인소득으로 출연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34조 1항 의거 소득금액의 10% 범위내에서 공제혜택을 받음

■ 법인소득으로 출연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의거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공제혜택을 받음

■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1항 의거 과세대상에서 제외

선후배와 함께 그린 위에서 '나이스 샷!'

첫 골프대회 2백40여 동문 참가 … AMP 단체 우승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9월 26일 경기도 여주 렉스필드CC에서 제1회 서울대 동문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각 단과대학(원)과 특별과정, 직능 및 지방 지부동창회에서 참가한 동문 2백40명이 60개조로 나눠 샷건방식으로 9홀씩 Mountain·Lake·Valley코스를 돌았다. 순위를 가리는 대표팀 단체전과 개인전은 스트로크방식, 남자 친선팀과 여자부는 신페리어방식을 적용해 진행됐다.

특히 각 동창회의 폭발적인 관심과 협조로 다양한 학과와 과정을 졸업한 동문들이 고루 참가, 시종일관 멋진 플레이와 선후배간 정담을 나누는 모습이 연출됐다.

또 행사를 지켜본 참석자들은 화창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내용과 시설면에서 수준 높게 진행됐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오후 5시 俞靜雅(사회85-89 前KBS 아나운서)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시상식에서 본회 林光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많은 골프 애호 동문들께서 타 대학동창회가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는 개인부담 형식의 골프대회를 갖자는 의견이 있어 오늘 이렇게 개최하게 됐으며, 원래 3백20여 명의 동문들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골프장 사정으로 2백40명만 참가토록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널리 양해해달라"고 말하고 "휴장일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사용을 배려해주신 웅진그룹 尹錫金회장과 본 대회를 위해 기꺼이 협찬해주신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장학빌딩 건립에 대해 "모교와 동창회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으며, 십시일반 보태주신다면 머지않아 서울대 동문들의 자랑인 장학빌딩이 완성되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영원히 장학빌딩 명예의 전당에 남게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대표팀 단체우승 AMP동창회

대표팀 개인우승 黃奎榮동문(左)

여자부 우승 柳慶淑동문(左)

남자 메달리스트 金沆九동문(左)

여자 메달리스트 李康喜동문(左)

홀인원 기록 南泳雨동문(左)

이어 李御寧(국문52-56)초대 문화부 장관이 건배사에서 "영어로 변하다(change)와 기회(chance)라는 단어는 글자 한 개 차이"라며 "성공적으로 치러진 골프대회가 동문사회에 변화를 일으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 "이제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선배인 우리가 후배들의 명예와 영광, 그리고 미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그 가운데 가장 보람된 일 중 하나인 동창회관 장학빌딩 건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朴榮敏(체육교육62-66)경기위원장의 보고에 이어진 본상 시상에서 합계 238타를 기록한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팀이 대표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해 우승기와 기념품을 받았으며, 241타를 친 사법대학동창회팀, 242타를 친 수의과대학동창회팀이 2, 3위를 기록했다.

대표팀 개인전 우승은 76타를 친 黃奎榮(수의학82-86)동문에게 돌아갔으며, 남자 친선팀에서는 郭淳哲(AMP 32기)동문, 여자부는 柳慶淑(AMPFRI 11기)동문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또 단체전 우승을 이끈 金沆九(AMP 40기)동문과 친선팀의 朴秉南(4기)AMPFRI동창회장이 2백40명 중 최저타인 75타를 기록해 동률을 이뤘으나 대표팀 우선원칙에 따라 金沆九동문이 남자 메달리스트에 올랐으며, 李康喜(치의학80졸)동문이 뛰어난 실력으로 1타 뒤진 76타로 여자 메달리스트를 차지했다. 李동문은 초다버디도 함께 기록해 참가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4면에 계속〉

南泳雨동문 145야드 '홀인원' 기록

(3면에서 계속)

남녀 롱게스트에는 270야드를 친 金經燁(계산통계85-89)동문과 250야드를 기록한 高聖姬(치의학79졸)동문이 선정됐으며, 남자 니어리스트상은 92cm를 기록한 鄭鍾淳(경영62-69)동문, 여자 니어리스트상은 洪京子(간호62-66)동문에게 돌아갔다. 최다 버디상은 洪禮杓(치의학65-71)동문, 최다 파상은 李丞翔(사법83-87)동문이 차지했다.

특히 이날 Lake 7번과 Valley 3번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할 경우 BMW코오롱 모터스에서 부상으로 승용차 1대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南泳雨(화학공학71-75)동문이 아쉽게도 Mountain 7번홀(145야드)에서 홀인원을 기록, 렉스필드CC 成祥鏞사장으로부터 홀인원 증서와 부킹권 1부, 본회에서 준비한 DMB 휴대폰을 받았다.

또 이글을 기록한 李範俊(수의학78-82)·朴贊烘(법학80-84)동문에게 렉스필드CC 成祥鏞사장이 이글 증서와 부킹권 1부, 본회에서 준비한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공연티켓을 전했다.

시상식이 있은 후 본회 孫一根 상임부회장이 참석자들에게 배포된 장학빌딩 건립안내서에 대한 소개를 했으며, 즉석에서 黃慶老(AMP 11기 한국금박공업 회장)동문이 장학빌딩 건립기금 1천만원을 약정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 전원이 골프모자, 아로나민 골드, 풀목산농원 선물SET, 고급 우산 등을 기념품으로 받았으며, 경품으로는 디지털 카메라와 DMB휴대폰 등 푸짐한 상품이 제공됐다. 尹鍾龍(전자공학62-66)삼성전자 총괄부회장이 협찬한 PDP 42인치 TV는 崔博文(AFB 1기)동문이 당첨됐다. (表)

남자 니어리스트 鄭鍾淳동문(左)
여자 니어리스트 洪京子동문(右)

여자 롱게스트 高聖姬동문(左)
남자 롱게스트 金經燁동문(中)

경품 PDP 42인치 TV를 받은 崔博文동문(左)

각 부문별 수상자

▲대표팀 단체전 △우승 :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 金沆九(40기)·曺寔善(52기)·申 勳(55기)·朴濟勳(58기)동문. △준우승 : 사범대학동창회 金東進(체육교육62-66)·朴榮敏(체육교육62-66)·黃寅勝(체육교육63-67)·趙顯益(체육교육74-78)동문. △3위 : 수의과대학동창회 金哲仲(75-79)·李範俊(78-82)·申相泰(76-84)·黃奎榮(82-86)동문.

▲대표팀 개인전 △우승 : 黃奎榮(수의학82-86) △2위 : 南泳雨(화학공학71-75) △3위 : 梁正文(AMP 54기) △4위 : 裵吉勳(철학65-70) △5위 : 申有澈(AMPFRI 3기) △6위 : 洪宗浩(사회62-66) △7위 : 朴明眞(AIC 12기) △8위 : 姜太星(AFB 1기) △9위 : 朴鍾源(AIC 12기) △10위 : 朴炳憲(GLP 7기)동문.

▲남자 친선팀 △우승 : 郭淳哲(AMP 32기) △2위 : 韓璟洙(법학72-76) △3위 : 林正洙(법학72-76) △4위 : 河權益(의학57-63) △5위 : 南相海(ACAD 37기) △6위 : 金光洙(ACAD 41기) △7위 : 洪起浩(AMP 47기) △8위 : 金烈聲(치의학62-68) △9위 : 姜世午(법학76-80) △10위 : 姜忠善(불어교육65-70)동문.

▲여자부 △우승 : 柳慶淑(AMPFRI 11기) △2위 : 金京玉(가정관리69-73) △3위 : 李馨淑(의류69-73) △4위 : 具玉卿(치의학62-68) △5위 : 李貞熙(HPM 12기) △6위 : 金玉連(간호66-70) △7위 : 權潤芳(체육교육59-63) △8위 : 李吉女(의학51-57) △9위 : 車惠榮(치의학61-67) △10위 : 姜富子(ACAD 37기)동문.

협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姜信浩(의학48-52)본회 고문 : 음료수 2백40캔
• 林光洙(기계공학48-52)본회 회장 : 고급 양식기SET 20개
• 李吉女(의학51-57)본회 부회장 : 골프모자 4백개
• 李金器(약학55-59)본회 부회장 : 아로나민 골드SET 2백40개
• 趙炳祐(섬유공학59-64)본회 부회장 : 모자제작 지원
• 朴泳俊(행정64-68)본회 부회장 : 양주 2병·골프공SET 2개
• 鄭八道(AIP 1기)본회 부회장 : 일금 2백40만원
• 尹錫金(AMP 27기)웅진그룹 회장 : 전기 압력밥솥 10개
• 尹鍾龍(전자공학62-66)삼성전자 총괄부회장 : PDP 42인치 TV 1대
• 朴榮敏(체육교육62-66)고려대 체육교육과 교수 : 드라이버 1개
• 崔洸舜(농화학71-79)풀목산농원 대표 : 선물SET 3백개
• 金容辰(기계공학76-80)공주대 기계공학부 교수 : 건강제화 남녀 각 1켤레
• 韓 勳(산업공학76-80)KTF 전무 : 휴대폰 2대
• 金有煥(AMP 54기)한미스포츠 대표 : 골프백SET 5개
• ROTC동문회(회장 梁在鉉) : 일금 1백만원
• 관악무역인회(회장 尹炳和) : 일금 50만원
• BMW코오롱 모터스 : 골프백SET 6개

인도네시아지부

농대 단체전 골프 우승

인도네시아지부동창회(회장 裵相暻)는 최근 자카르타 근교의 자고라위 골프장에서 동문 40여 명이 모여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공대, 농대, 상대, 문리대·사대·미대 등 4개 팀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농대가 단체전 우승으로 총동창회장배를 받았으며, 준우승은 공대가 차지했다.

또 개인전에서 메달리스트에 許光復(임산가공76-82)동문, 1위에 崔起和(농경제73-77)동문, 2위에 鄭世浴(임산공학87-91)동문, 3위에 金鍾周(임학83-88)동문이 올랐으며, 徐基雲(자원공학73-80)동문과 韓尙奎(영어교육72-76)동문이 각각 근접상과 장타상을 수상했다.

음악대학

李在淑회장대행 선출

음악대학동창회는 지난 8월 27일 임시 회장단 모임을 갖고 韓相宇회장의 별세로 공석인 회장대행에 모교 국악과 李在淑(국악59-63)교수를 선출했다.

文裕眞(성악82-86)사무국장은 "회장 부고시 관례상 수석부회장이 대행을 하고 있으나 申秀貞(기악59-63)수석부회장이 최근 모교 음대 학장에 취임함에 따라 부회장인 李在淑교수가 맡게 됐다"고 밝혔다.

치과대학

자선골프대회 열어

치과대학동창회(회장 白純之)는 지난 8월 25일 경기도 용인 한화프라자CC에서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해 회원간의 친선을 도모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1백여 명의 동문이 이날 대회에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경기 결과 챔피언조에서 姜泰馨(71-77)동문이 78타를 기록해 우승을 차지했으며, 핸디캡조에서 金光善(58-61)동문이 72타로 1위에 올랐다. 여자부 우승은 李賢經(83-89)동문에게 돌아갔으며 31회 동기회가 단체전 우승 트로피를 받았다. 롱게스트상은 2백40m를 친 林秉采(80-86)동문이 차지했으며, 니어리스트상은 1m20cm를 기록한 許正圭(62-69)동문에게 돌아갔다.

이날 대회를 통해 모금한 성금은 연말에 사회복지단체를 통해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

1·2기 합동 골프대회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金在淵)는 지난 9월 5일 경기도 수원CC에서 제1회 1·2기 합동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알루텍 鄭恩澤(1기)대표가 72타를 기록하며 메달리스트에 올랐으며, 우승은 79타를 친 대경산업 鄭相和(2기)대표가 차지했다.

준우승에 李晩馥(2기)동문, 니어리스트에 李佑植(2기)·李政洙(2기)동문, 롱게스트에 趙鍾壽(1기)·朴泰榮(2기)동문이 각각 올랐다.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하나로텔레콤 견학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동창회(회장 金日洙)는 업체탐방의 일환으로 지난 8월 30일 하나로텔레콤 동작 정보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문 30여 명이 참석해 하나로텔레콤 홍보 영상물을 시청한 후 종합망관리센터, BCN 홍보관, 전화장비실, 정보·전송장비실 등을 관람했다.

同會는 이날 업체탐방을 끝으로 올해 사업을 마무리했으며 내년 1월 신년회를 개최한다. (南)

환경대학원

환경연합 尹畯河대표 특강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郭決鎬)는 지난 8월 31일 서울 강남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郭決鎬회장, 모교 환경대학원 金安濟명예교수, 黃琪源원장, 李榮寅부원장 등 동문 4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앞서 郭決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모교 교수님과 동문들의 힘으로 환경부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郭회장은 최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이날 연사로 초빙된 환경운동연합 尹畯河공동대표는 '환경운동의 현재와 미래 : 작은 사회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쳤다.

경영대학원

임원 초청 조찬세미나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 金英大)는 지난 9월 8일 서울 관훈동 대성그룹 대강당에서 고문, 부회장, 상임이사 등을 초청해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모교 경영대학 安泰植(경영75-80)부학장이 '전략적 성과 평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전기전자제어 연합회

4월에 출범…명부 발간

전기전자제어동문회 연합회(회장 李炳旭)는 지난 8월 20일 첫 사업으로 회원명부를 발간해 동문 간 정보교환 및 친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원명부에는 학사 7천4백94명, 석사 2천8백91명, 박사 8백39명 등 총 1만1천2백여 명의 자료가 수록돼 있으며 자택, 직장

주소, 전화 번호, 이메일 등이 담겨 있다.

지난 95년 모교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가 전기공학부로 통합됨에 따라 각 동문회가 모여 올해 4월 전기전자제어동문회 연합회로 출범했다.

초대 대표회장에 노키아TMC 李炳旭(전자61-65)명예회장(사진), 공동회장에 AL테크 金正烈(제어계측78-82)회장, 한국전력공사 鄭泰豪(전기66-72)부사장, 부회장에 삼성전자 李鴻雨(전자65-69)대외협력담당 부회장, 이화여대 林惠淑(제어계측82-86)교수, 사무총장에 모교 전기컴퓨터공학부 李在弘(전자72-76)교수 등이 선출됐다.

동숭클럽

12월 1일 송년모임

문리대 65학번 모임인 동숭클럽(회장 裵吉勳)은 지난 9월 1일 서울 삼성동 현죽빌딩 6층에서 제5차 동숭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 고려대 기초의학과 李敏商(미학)교수가 특별 강연자로 초청돼 '중년부부의 이상적인 사랑 : 성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열강을 펼쳐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날 모임에는 처음 참석한 金人起(외교)·朴準佑(화학)·朴惠蘭(독어독문)·孫在國(독어독문)동문을 포함해 30여 명이 참석했다. 다음 모임은 12월 1일 서울 강남 메리어트호텔에서 있을 예정이다.

정치·외교학과

李圭煌동문 강연

정치·외교학과동창회(회장 金駒)는 지난 9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가넷룸에서 정례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李圭煌(정치66-70)국제경영원장이 연사로 초청돼 '우리 경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이날 모임에는 金相廈(정치46 49)·西時旭(정치54-58)·高錫銘(외교56 65)·蔣正煥(정치56-63)동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南〉

동문 작품 지상 전시회

鄭 姸 姬 作 'Life is such a voyage III' Stainless steel, 84×44×45cm, 2002.

〈작가약력〉

▲78~82년 모교 미대 조소과 졸업
▲86~89년 모교 대학원 조소전공 졸업
▲87년 서울조각회 젊은 작가 특별전
▲92~05년 개인전 6회
▲95년 전국민족미술인 연합 창립전
▲97년 낙우회 테라조-소각의 본질
▲99년 나주국제미 술제
▲00년 새천년 대한민국의 회갑전
▲01년 경북여고 동문전
▲02년 원불교 여선회전
▲03년 여류조각회 전
▲04년 담회마을 야외조각전
▲05년 서울조각회 전
▲현재 모교 미대 강사

홈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

꼭 기억하세요! 10월 16일 일요일

서울대인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제27회 홈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를 오는 10월 16일 거행합니다.

△**일 시** : 2005년 10월 16일(日) 오전 9시
△**집합장소** :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
△**참가대상** : 동문 및 동문 가족 △**참가비용** : 없음
△**제공물품** : 도시락, 식음료, 기념품(金赫惠교수 CD) 등
△**경 품** : 다량의 선물 추첨
(林光洙회장 승용차 제공, 대림산업 李埈鎬회장 오토바이 제공)
△**기 타** : **전주비빔밥 이벤트 병행**(식품 및 의식산업보건최고경영자과정)
△**문의전화** : 02)702-2233

※ 우천시에는 모교 문화관 대강당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특별기고

대학교육에 대한 간섭 … 이제 그만

□ 들어가며

서울대학교에 대한 정당과 정치권, 정부와의 관계는 일촉즉발의 화산 격이 됐다. 교육개혁위원회가 들고 나온 서울대학교 폐교론이 잠잠해졌나 했더니 국회에서는 서울대학교설치령폐지 건의안까지 제출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의학전문대학원 문제로 의과대학 교수회와 대립하고 있으며 입학에서의 3불정책을 강행해 서울대학교 입시정책을 변경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을 서울대에서 떼어내어 다른 국립병원과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다. 총장선거를 직선제로 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를 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이 통과돼 학내에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문제 때문에 기존 설정과 정원문제로 교육인적자원부와의 대립이 우려되고 있다. 또 국립대학운영체제개선에관한특별법안과 국립대학재정운영에대한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독립법인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10여 년 전에 정부에 건의했는데 그때는 무시하더니 이제 다시 전국립대학 법인화를 도입하겠다고 하니 정책의 잦은 혼란 때문에 대학이 갈 바를 모르고 있다.

이러한 대학정책의 난맥상 때문에 대학의 자율권이 침해된다고 하여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는 반박성명을 내었고, 서울대학교 병의회도 대학교육의 자유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내었다. 지난 8월 31일에는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주최로 '대학의 자율화는 진전되고 있는가'라는 심포지엄을 열어 정부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했고, 심지어 교육인적자원부 폐지론까지 나왔다고 한다. 서울대학교동창회도 '국가경쟁력과 교육의 수월성'이라는 단행본을 내어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 자율화란 무엇인가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들은 대학 그중에서도 국립대학은 정부의 재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대학의 본질을 모르는데서 나온 것이다.

대학은 정부산하의 공기업이 아니고 사상의 생산자로서, 진리탐구자로서 사회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대학은 계급투쟁의 대상이 아니고 대학은 국가를 경영할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장관을 비롯해 고급공무원이 육성됐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길러내어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던 것이다.

대학은 또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어 국가발전과 인류발전의 기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대학이 사상과 학문연구의 독점지였으며 오늘날에 와서도 그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IT, BT의 연구로 전 인류를 먹여 살리고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이 대학이다.

독재시대에 대학의 자유를 외치던 386세대들이 집권하자마자 독재자 못지 않게 대학의 자율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하겠다. 현재의 개혁세력들이 대학에서 완전히 축출됐다면 오늘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대학은 정부정책 집행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대학에는 자치가 보장돼야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까지 보장하고 있는데 국립대학을 마치 하나의 공기업인 양 지배하려는 것은 대학자치의 기능과 중요성을 모르는 소치이다.

대학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자주적으로 학생과 교원을 선발하고 수업과 졸업사정 등을 하며 재정운영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대학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필수적 요소이며 교육제도의 근간을

金 哲 洙
(법학52 -56)
모교 법대 명예교수

이루고 있다. 이에 우리 헌법은 제31조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법률은 정부나 국회의 다수파가 마음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인 대학의 자치권을 공공복리, 질서유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과 필요성이 없는데도 함부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법률로 선언돼 효력을 상실할 것이다.

정부는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만약에 법인화가 되면 법인 이사회가 운영의 최고결정기관이 돼야 하는데 열린우리당에서는 대학평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대표, 직원대표, 지역대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추천자 등 교수이외의 평의원을 반수가량 두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상호 모순되는 안이다.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인데 학외 사람을 최고심의기관의 평의원으로 대량 영입하려는 것은 대학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 대학의 구조조정

정부는 국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중요과제로 제시해 다년간 노력해 왔다. 국립대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은 인정되나 현재까지 교수사회의 반대로 국립대학의 통폐합조차 못하고 있는 판에 국립대학 법인화까지 들고 나왔다. 서울대학교가 독립법인화를 요구했을 때는 무시했던 정부가 전 국립대학을 법인화하겠다고 하는데 국립대학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어 그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학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과거에 문화공보부가 교육부에 속했던 도서관 행정을 접수한 적이 있었다. 그때도 대학 도서관만은 대학의 연구기능과 학습기능을 위해서 대학부설기관으로 남겨졌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독립법인인 서울대학교병원을 접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고등교육기관임을 무시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원래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이었는데 병원 측이 독립을 원해서 독립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 법인의 이사장은 서울대 총장이며 이사에는 서울대 의과대학장, 서울대병원장, 서울대치대병원장 등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서울대 부속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다. 당연직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장이 들어 있어 고등교육기관이기는 하나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학교병원의 관할이전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이사회에서 건설적인 발언권을 행사해 서울대병원 발전에 기여하면 될 것이다.

서울대학교 전체를 독립법인화하지 않고 대학병원부터 법인화한 것도 문제이다. 대학은 서울대학교설치령이란 법률하위의 대통령령의 규제를 받으면서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독립된 설치법을 가지고 독립하고 있는 것도 모순이다. 서울대학교의 법인화는 서울대학교의 교육인적자원부 예속을 피하는 방법으로서 주장된 것이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독립법인인 서울대학교 행정에 계속 관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개악이 될 것이요, 관의 지배를 받으면서 기부입체인 대재벌의 지배까지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 입시의 자율성 확보도

정부는 대학입시에 있어 삼불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5월 23일 3불정책을 법률로 확정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발의하고 있다. 3불정책이란 ①고교등급제 금지, ②필답고사 금지, 논술고사의 본고사화 금지, ③기여입학제 금지를 말하는 것이다. 정부가 3불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대학교육의 본질을 무시하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포퓰리즘의 결과라고 하겠다. 교육부가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것은 고교평준화 제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이유이다.

고교평준화는 독재정권이 선거에서의 득표를 위해 고안한 정책이며 그 결과 부자지역의 학부모만 득을 보고 가난한 수재, 지방학생을 불리하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옛날에는 명문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모두가 명문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고액과외를 하지 않으면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없는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얼연히 특목고라든가 자립형 사립학교가 있어 고등학교학생의 학력차가 엄존한데도 불구하고 학력차를 무시하고 전원일등급인 학교내신이나 수능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대학입시를 로또당첨처럼 실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요행에 맡기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학생 때부터 실력은 쌓지 않고 사행심만 조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병폐가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오고 기러기아빠, 기러기학생을 양산해 국가인재를 외국에 빼앗기고 국가의 부를 탕진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미국의 대학입시나 일본의 대학입시에서는 고교등급화는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며 편차치(偏差値)까지 공개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본고사 금지도 같은 맥락이다. 대학의 입학생 선발권은 대학 고유의 기본권이다. 1994년도 서울대학교 입시요강에서 제2외국어 선택과목으로 일본어를 제외한 것이 교육의 기회균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보장은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인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1992. 10.1 선고, 92 헌마 68)

학생선발을 요행에 맡기지 않기 위해서는 또 고교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각기 대학의 본고사가 필수적이다. 본고사를 못하게 하려면 심층면접시험 등을 통해 대학에서 학습이 가능한가 하는 능력을 검정해야 한다.

서울대학교는 정부의 입시정책에 순응해 그동안 고교등급제를 적용하지 않고 본고사를 치르지 않았으며 지역균형선발전형 30%를 적용해 최우수학생들을 명문시립대에 빼앗겨 이제 산입생의 질이 최상이라고는 말할 수 없게 됐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지방대학 죽이기라는 악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폐지돼야 마땅하다. 또 세계에 유래 없는 수시입학제도도 고교 3학년 수업의 정상화를 위해 폐지돼야 한다.

□ 끝으로

서울대학교는 교수협의회나 대학평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학시험에서 교육부의 '대입제도개선안'의 취지를 살린 2008학년도 대학입시전형방안을 확정했다. 서울대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은 서울대학교설치령이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서울대학교를 둔다'(제2조)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체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공동체는 대학의 자유사수를 위해 과감히 일어나야 한다.

교육부는 경제계가 요청하고 사회다수가 요구하는 수월화 교육을 해야 할 것이고, 현재의 암묵적인 평준화 교육정책을 포기하고 선진국의 수월화 교육정책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폐지돼야만 한국교육이 바로 선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교육부는 권력행사를 자제하고 교육예산 6%를 달성해 고급인적자원을 육성하도록 대학을 지원해야 하겠다. 교육부는 하루속히 평준화정책을 폐기하고 교원노조들의 반교육적인 활동을 억제해 교육을 대학과 국민의 손에 되돌려주어야 한다.

알프레드 마셜 교수의

'냉철한 두뇌·뜨거운 가슴' 늘 잊지 않고 있어요

물문을 찾아서

陳 稔 前경제부총리·서강대 초빙교수

IMF의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한국 경제라는 배의 키를 잡고 큰 풍랑을 헤쳐나간 장본인으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당시 경제부총리를 맡았던 陳 稔(경제59-6J)동문은 경제정책을 다룬 관료로서, 강단에선 교수로서 그리고 실물경제를 다룬 기아자동차 회장까지 우리 경제의 전 부문을 섭렵한 드문 인재로 우리 나라의 장래에 대한 걱정과 후배·후학들에 대한 격려를 주저하지 않았다.

활동하는 책임 있는 지식인으로서 조국과 민족의 장래에 대해 충언을 해야겠다는 그는 최근 한국선진화포럼의 운영위원장을 맡아 다시딱 봉사라는 다짐으로 포럼의 활동방향과 한국경제의 해법 등을 들려줬다.

대 담 : 본보 辛京珉논설위원 (MBC 해설위원)

– 최근 강단에서 정부정책과 관련, 3NO 즉 'NATO(No Action Talk Only) NARO (No Action Roadmap Only) NAPO(No Action Plan Only)'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가 지금 선진국 문턱에서 10여 년째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얼마전 중국 상하이 푸동공단과 그 옆의 소주공단을 가보고 섬뜩했습니다. 상하이는 작년에 컨테이너 부두 순위에 있어서 부산항을 세계 5위로 밀어내고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10년 뒤, 20년 뒤 세계 1위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등소평의 실용주의가 푸동을 15년만에 크게 성장시켰고 소주공단을 10년만에 건설한 것입니다.

중국은 고속도로로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고속철도, 사만금 어느 것 하나 순탄하게 진행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또 푸동은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고비로 해서 세계 3대 경제 특구로 부상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이는 여의도 네 배 정도의 지역을 지정해 '인터내셔널 메디컬센터'를 건설중입니다. 이곳에 세계 일류의 병원·의료장비 제조회사·재활센터 등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의료 관계법도 고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근까지도 외국 의료·학교법인 등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가 지금 속도로는 결코 중국을 따라 갈 수 없습니다. 현재 첨단 산업부문 특히 IT와 연결된 부문, 조선산업, 또고 黃禹錫석좌교수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바이오 산업 등이 우리가 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까지 중국에 의해 추월 당하면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노사, 임금, 인력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제조업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 제조업은 아웃소싱 또는 해외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기존 IT산업은 기술력과 브랜드 면에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망한 산업인 물류, 관광, 교육,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경쟁력도 확보해 새로운 아시아시대의 가장 역동적인 분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럼 저들이 이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예전 우리의 포항제철, 울산공단 등 건설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했던 것을 빠른 속도로 실천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는 '삼보일배'로 멈칫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 그러면 어떤 정책기조로 가야 하겠습니까.

아시아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지금, 국가의 비전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그동안 정부마다 중장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천하려고 했으나 정부가 달라지면 이 모든 것이 전부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골드만 삭스'는 2020년이면 브릭스(BRICs)가 세계 국민소득의 30%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나라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아시아시대를 맞을 것인가 하는 비전과 전략이 국민들과 공유돼야 합니다. '기업인, 정부, 가계 등이 새롭게 도래하는 시대에 어떤 일을 해야하고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 라는 비전이 국민들과 공유되는지를 가장 먼저 자문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물론 잘못된 과거는 바로 잡아야지요. 그러나 잘된 역사는 오히려 활력을 키워야하고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 특히 미래를 위해 국가 에너지의 70~80%를 써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모두 잘못된 것으로 부정하면서 과거와 등을 지고 과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지 따져볼 일입니다.

금년이 광복 60주년이죠. 그동안 우리는 지구촌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왔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빛과 그림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잘못된 역사로 몰아 세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마찬가지로 민주화도 가장 빨리 이룩한 나라가 됐는데 그 민주화를 실현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을 통해서 경제적 기초를 튼튼히 만든 사람들이 민주화의 일등공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화시대 사람, 민주화시대 사람으로 편가르기보다는 산업화시대

공직에 있는 후배들, 진정성으로 소신껏 옳다는 생각을 충언해야

대책을 세우면서 냉탕과 온탕을 오고간 문제입니다. 그러니 결국 보유세는 현실화시키고 거래 비용은 줄여 주택을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뿌리내리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 방향인데 현재 세우고 있는 정책이 과연 그런 방향으로 디자인돼 집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부동산 문제를 빈부격차 시정차원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를 가려 보아야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지난 정부에 봉직했을 때 꼭 하고 싶었던 부동산 정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이 있습니다. 80년 중반 경제기획원 차관보를 하고 있을 당시 지역에 따라 당연히 편차가 있을 수 있는 아파트 가격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토지에 더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소득 불균형의 원인이 역시 땅 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유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생각도 하지 않고 농토를 샀다가 2~3년 내에 공영개발로 인한 용도·형질 변경으로 땅 값이 10배 이상 챙기지 않습니까. 이 불로소득 분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공적으로 환수해 임대주택 단지 등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제 기본 발상이었습니다.

농사를 짓지도 않고 용도 변경할 경우 토지 이익금의 80%를 세금으로 징수한다고 하면 거기에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1985년 이 안을 마련했는데 그 뒤 해운항만청으로 가는 바람에 이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 재벌을 비롯한 기업 일반이 투자를 꺼려하면서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없애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교육, 출산 장려, 여성 고용확대 등도 필요하겠지만 역시 기업의 투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부자는 정부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들은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정부와 기업이 반품씩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은 더 성장하기 위해 투자와 연구개발을 많이 해 성장 동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동안 대기업과 관련해서 많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황제식 경영을 깨기 위해 사외 이사제, 소액 주주제 등을 도입해 회계투명성을 강화했고 감사위원회, 집단 소송제 등을 도입했는데, 이는 모두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들이 전차 뿌리내리게 되면 이에 맞춰 직접적인 출자제한은 완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산업화 경륜·민주화 패기 합쳐
한국 선진화 앞당기는 것이 리더십

그 대신 기업도 이에 상응하는 자기 쇄신을 보여 줘야 합니다.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증여 상속은 자제 해줘야해요. 순환출자를 통해 적은 자본으로 많은 기업을 지배하는 관행도 바로 잡아져야 합니다. 몇몇 기업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업계가 국민에게 먼저 올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 과거 DJ정부의 경제 정책과 현 정부 정책의 차이점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DJ정부 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IMF 이후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외환보유고를 늘리자는 목표였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에너지를 함께 모으는데 지금보다도 여건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빈부격차 해소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장과 분배 문제를 놓고 2년 이상 논쟁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분배만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은 나라 가운데 성공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미나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도 시장 경제를 추진한 가운데 분배를 앞장세워 성공하질 못했습니다. 성장과 분배를 가장 조화롭게 실행한 나라는 대만 그 다음이 한국이라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됐어요. 경제 성장이 있어야 우리가 미진한 사회복지제도도 확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념적으로 문제를 다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용주의, 실사구시 면에서 다룰 때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다.

– 현재 한국선진화포럼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이 모임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저는 우리가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올해가 광복 60주년 아닙니까. 과거 포츠담러·일 강화조약이 체결되면서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 당시 우리 조선 정부는 국제 시류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정권 싸움만 하다가 결국 근대화가 늦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우리의 역사는 정말 눈물겨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의 자화상을 한 번 살펴보십시오.

광복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는 노력이 보이질 않습니다. 정치권, 일반 사회 모두가 갈라져 싸우고 있어요. 이를 보면서 이러다 잘못하면 우리 책임있는 지성인들이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여러 지식인들에게 생겼죠. 과거 1백년 전의 역사는 30~50년 뒤의 결과로 나타나지만 지금은 스피드시대이기 때문에 3~5년 동안 정치를 잘못하면 10년 혹은 20년 뒤에 우리의 좌표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식인들이 '이제는 할 얘기는 하겠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미흡한 것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제안도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라고 생각한 거죠. 특히 南悳祐 前총리를 비롯한 여러 분들께서 국가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모임의 방향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여러 포럼이나 모임들이 연구 발표에서 끝나는 한계를 보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국민적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가는 것이 우리 포럼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저희들이 2년 정도 이 모임의 길을 다진 후, 중견 지식인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주의를 신봉하는 자세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뒤에서 불평불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실천하는 지식인이 되도록 독려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 전에 '지금보다 일제시대 교육이 더 낫다'면서 교육에 대해 걱정하신 바 있는데 현 논술고사, 평준화 정책 등과 관련한 교육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에 어느 조찬 모임에서 지금의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과거의 교육제도에 대해 언급한 것이 제 의도와는 달리 언론에 의해 잘못 해석돼 '일제시대 교육이 더 낫다'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곤욕을 좀 치렀습니다.

그 당시 저의 생각은 과거에는 서울 외에도 각 지방에 좋은 명문학교들이 있어 학생들이 각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 현재는 서울에 전부 몰려 있고 교육의 차별성도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준화는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설치를 자유화해 각 지역에 명문학교를 세우자는 게 제 생각이었죠.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는 진정한 사립학교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국가가 끌어안고 모든 것을 다 하려니 예산만 낭비될 뿐입니다. 이 한정된 자본을 공립학교의 질을 높이는데 쓰고 사립학교는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되도록 하자는 것, 또 초중고등학교의 운영은 각 지방 자치단체에 넘겨주고 대학은 자율과 경쟁 체제로 가자는 것이 제 철학이었습니다.

학생 선발권도 3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대학에 맡기고 그 대신 학생들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는지 엄격하게 관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립대의 경우는 이를 법인화해서 잘하는 데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율과 경쟁의 대학 교육입니다.

– 건의해서 좀 실행이 되셨나요.

2001년 11월에 대통령께 6가지 소프트웨어를 건의하고 위원회에서 통과시켰죠. 그 내용은 대학의 학생 선발권, 특목고·자립형 사립학교 30개 이상 운영, 외국 학교법인의 문호개방, 대학총장의 재량 범위의 확대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정책 방향은 제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IMF때 입각하셔서 어려웠던 점도 많았을 텐데 당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면.

당시에 IMF 협약이 너무 조급하게 맺어져 감당하기 어려운 처방전을 받았죠. 때문에 재협상을 해야 한다 못한다를 놓고 논쟁이 있었죠. 다행히 IMF와 재협상이 이뤄져 SOC 투자를 확대해 국내 수요를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서 외환위기 당시 40억불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를 지금은 2천억불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2002년 4월에 추락됐던 국가신인도를 2단계 상승시켰고 '아시안 머니'지에서 아시아의 재무장관으로 저를 선정해주는 큰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기업과 국민 모두가 '금모으기' 정신으로 함께 노력한 결과이죠.

– 陳 前부총리는 탁월한 능력과 투명한 생활에서 오는 카리스마로 직업이 장관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공한 관료였다고 후배 공직자들이 평을 합니다. 후배 공직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가르침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너무 과분한 말씀인데 저는 어떤 자리에 있었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직접 윗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성공한 정부가 되고 그래야 국민한테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후배 공직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윗사람 눈치나 보고 본연의 일에 소홀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죠. 그러나 공직자들은 나라 경영에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하면서 윗사람한테 바른 얘기를 해야합니다. 혹시 눈치 보느라 직언을 하지 못한다면 장관직도 그만 둬야겠죠. 공직에 있는 후배들은 그런 진정성을 갖고 충언을 드려야 하고 윗사람도 그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 상과대학을 들어가셨는데 집안 사정이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당시에는 주변에 못먹고 못사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경제학을 전공한 이유도 그런 까닭이겠죠. 사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해도 법대를 가려고 했습니다. 마침 그 때 우리 집에 송사가 있어 고등학교 선배 변호사를 몇 번 찾아간 일이 있었는데 그 때까지 제가 생각했던 변호사는 일제 때 독립투사를 위해 무료 변론도 해주고 사회적 정의도 지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완전 상업적이라는 느낌이 들어 제 적성에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죠.

– 대학 다니실 때 잊지 못할 선후배나 스승이 있으셨나요.

많은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이제는 돌아가셨죠. 지금껏 기억에 남는 것은 돌아가신 高承濟교수님이 대학 1학년 때 알프레드 마셜 교수의 경제학원리를 가르치면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도는 '냉철한 두뇌와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과연 경제 현상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는지 혹시 내가 뜨거운 머리로 경제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번 자문을 했습니다.

– 인생의 전환점이 될 큰 일을 많이 겪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는지요.

ROTC 낙제했을 때였습니다. 1년간 학군단 훈련을 받았으나 가족과 관련된 이른바 연좌제 문제로 임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엄청난 좌절감을 겪어야 했어요. 이게 결국 6·25전쟁이 가져온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술도 많이 먹고 울기도 많이 하다가 4학년 4월말쯤 여기서 좌절되면 내 인생은 끝이다,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결심을 하게 돼 무모하게도 그 해 9월에 있을 고등고시 준비를 5월에 시작했어요. 너무 늦게 준비를 시작했지만 다행히 합격을 했죠.

– 태권도를 배우셨던데 어떤 이유로 시작하셨나요.

대학교 때 시작했는데 상과대학 태권도 회장을 하기도 했죠. '최소한 나 하나의 몸은 방어할 줄 알아야 정신적으로 자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태권도를 배웠어요. 또 태권도는 당시에는 일종의 정신 교육이었습니다.

– 부인이 성신여대 음대 徐仁貞학장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 어떻게 만나셨으며 슬하에 자녀는 몇 분을 두고 계신지요.

현재는 평 교수입니다. 음대학장에서 총장 직무대행까지 했었죠.

제가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에 다닐 때 한국 교수 한 분이 경영대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의 소개로 당시 인디애나주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던 제 안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현재 아들만 둘인데 큰 아이 綱이는 97년에 모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런던의 무디스에서 일하고 있고 둘째 律이는 연세대 경영대를 졸업하고 씨티그룹 계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정치에 여러 번 기회가 있으셨는데 그 때마다 고사를 하셨죠. 앞으로 또 정치나 관직에 기회가 오실 것으로 보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있어요. 좀더 젊은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노추 아니에요. 명예라는 것은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금방입니다.

– 동창회와 동문들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동안 동창회에 기여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동창회 발전을 위해 총동창회 林光洙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 대해 고맙고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창회에서 추진하는 장학빌딩 건립에도 동문들이 십시일반 참여해야겠지요.

〈정리= 朴宰亨기자〉

"외국 금융감독기관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보람"

특별 인터뷰 尹增鉉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금융은 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다. 국가경제와 세계경제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오늘날엔 더더욱 그렇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의 선진화 및 글로벌화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것도 그런 까닭이다.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는 지금 우리 나라 금융 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장을 함께 맡고 있는 尹增鉉(행정65-69) 동문을 만나(9월 22일 여의도 금감위원장실)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대 담 : 본보 朴璨姬 논설위원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문제점은 없는지요. 금감원의 체제에 대해선 여러 이견이 있습니다.

현재로선 최적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갈등요소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오히려 효율적인 면이 많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고 의사결정과정도 빠르고요. 어떤 제도든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만 그에 못지 않게 운용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양쪽의 좋은 점만 뽑아서 조화롭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 지난 8~9월 독일, 영국 등을 다녀오셨는데, 어떤 성과를 거두셨는지요.

금감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글로벌 시대엔 국경 없이 자본이 오고 가기 때문에 외국 금융감독기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추진한 업무중 가장 보람된 것은 각 국의 금융감독당국과 토론하고 MOU를 체결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입니다.

현재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중국과 MOU를 체결했고 지난 번에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FRB)과 함께 한국씨티은행에 대하여 공동검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선진 금융감독당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선진 감독기법을 배우게 된 것도 성과입니다.

– 최근 금감원에서 '금리가 주택가격 인상의 선행지표가 아니다'라는 자료를 냈던데요. 그러나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무시할 수 없지 않을까요.

최근의 부동산경기 과열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해까지 저금리 기조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과잉 유동성이 공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 런던, 방콕 등 세계적으로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 급등 현상은 정도가 지나칩니다. 일부 투기세력이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점 때문에 강도 높은 조세정책과 함께 투기지역에 한해 주택담보비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가구당 1주택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살다 보니 부동산 문제가 아킬레스건이지요.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부족하고 알마안가 바뀐 적이 많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자면 가진 사람들의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한 가구가 집을 두세 채씩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문화는 바뀌어야죠. 같이 갖겠다면 세금이라도 많이 내야겠죠.

– 과잉유동성이 문제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이나 주택가격을 보면 우리 나라에도 상당한 단기 과잉유동성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만 보면 금리를 올려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금리를 올리면 당장 많은 부채를 갖고 있는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중소기업의 부담 역시 커집니다. 또한 아직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고 회복 속도도 느려 금리 인상의 당위성이 없지 않느냐는 반론에 부딪칩니다.

경기회복 불투명해 금리인상 신중해야
직원들에게 도덕성·글로벌 마인드 강조

정부 입장에선 경기 회복을 우선 가치로 두는 만큼 아직은 금리를 올릴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금리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관치금융의 인식 때문에 정부에서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 현재 시중 금리는 오르는데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릴지 모른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회사채 금리 등은 오르고 있죠. 다음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대부업 금리 인하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대부업은 금감위가 직접 감독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지요. 대부업체의 금리가 너무 높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금리를 일방적으로 내리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사금융 금리를 연 1백%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게 금리를 인하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습니다. 지금 금리를 턱없이 낮추면 음성거래가 확대될 소지가 큽니다. 유동성이 급한 시민 입장에선 금리 몇 %가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 자체에 대한 접근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문제를 정부나 국회가 나서서 손대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경제관료시절 MFA태가 터졌는데 당시 실무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으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하고자 한 대로 안 된 부분이 많고 아직까지 밝힐 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단지 몇 사람의 의사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판단의 적시성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 30년간 압축 성장 과정에서 내재되었던 문제들이 분출한 구조적 문제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선 몇 세대에 걸쳐 이룬 성장을 한 세대에 이루면서 우리가 갈 수 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폭발한 것입니다.

– 외환 위기를 피해 갈 수는 없었을까요.

외환위기를 겪었던 다른 나라와 우리 나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중남미나 유럽은 공공부문부터 부실이 시작됐지만 우리 나라는 정반대였어요. 당시 우리 나라만큼 재정이 탄탄한 나라는 없었어요. 그런데 민간부문의 과잉투자 때문에 미스매칭(mismatching)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다 덩치만 키운 거죠. 경제가 잘 풀리지 않아 현금흐름(cash flow)이 나빠지면서 차입금을 갚을 능력이 급속히 악화된 것입니다. 한보철강부터 시작해 기아자동차, 대우그룹으로 번졌지요.

당시 우리 입장은 환율을 대폭 인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본이 계속 밖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을 계속 올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라 살림살이엔 자본수지(capital account)와 경상수지(current account)가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거시변수와 관계가 있는데 금리, 물가, 재정 같은 부분이 잘못 운영되면 적자가 날 수 있어요. 그것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와 자본이 오고 가는 자본수지는 한국의 정부가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EURO 같은 경제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한쪽엔 미국이 있고 아시아엔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어 개별 국가로는 경쟁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경제공동체나 통화동맹이 결성되는 것입니다.

– 아시아에서 유럽 같은 공동체가 탄생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요 아시아 국가의 외환보유고는 2조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공동체나 통화동맹이 형성되면 외환 유동성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의 경우 국가별 경제력 격차가 너무 심하고 상호간의 불신, 중국과 일본의 경쟁관계, 일본의 세계적 리더십 결여, 종교 분쟁 등 문제가 많습니다.

–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내 자본이 너무 많이 해외로 유출된 것 아닌가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내은행 몇 개를 외국펀드에 넘겨줬습니다. 외환은행의 경우 론스타가 인수해 금년 10월말에 매각제한이 풀리게 되는데 장차 누가 인수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은행은 매각시한을 3년 연장해놓긴 했지만, 공적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같은 좋은 기업도 많이 나옵니다. 입찰과정에서 국내외 자본을 동등하게 대해야 하므로 공개경쟁입찰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과연 외국 자본과 경쟁할 만한 국내 자본이 있을 지가 큰 과제입니다.

국내 자본을 육성하자면 사모펀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은 초기단계라 자금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축적된 자금이 나올 곳으론 연기금과 산업자본이 있습니다. 산업자본은 금융 자본과의 분리 원칙이 뚜렷하고 그 벽을 허물기엔 아직 여건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연기금인데 책임과 안정성 문제 때문에 이 또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우리 나라가 아시아의 금융 허브를 담당하는 일은 실현 가능할까요.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주변여건이나 인프라

측면에서 갖춰야 할 게 많습니다. 특히 금융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합니다. 내년에 금융전문대학원을 만드는 것도 그 같은 노력의 일환이지요.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사람 만큼 두뇌회전이 빠르고 적응력이 빠른 민족이 없는 데다 금융인프라에서 제일 중요한 IT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 만큼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다만 남북 분단,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현실, 영어 의사소통능력 부족 등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시간에 이루려 하지 말고 비전을 제시하고 노력해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 금융전문대학원은 어떻게 만드는지요.

MBA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프로그램을 짜서 정부에 제시하면 이를 지원하게 됩니다. 별도의 전문대학원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과정에 영어강의 내지 외국인교수 초빙 등을 첨가하여 전문화 또는 특성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 최근 코오롱에서 삼일회계법인을 고발하면서 맞고소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회계법인의 감사 관행과 내부 감사 강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업과 공인회계사가 상호 이율배반의 관계에 있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감사인의 입장에선 많은 기업을 고객으로 끌어들여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고객을 감싸주려고 하겠죠. 그러서 '한 기업을 6년 이상 감사하지 못한다', '감사하는 법인은 그 기업에 관한 컨설팅을 하지 못한다' 등 각종 차단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선 회계법인이 엄격하게 감사하게 되면 감사법인을 바꾸겠다고 할 겁니다.

공인회계사는 상제수사뿐을 지닌 것도 아니고 허당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은 져야 하니 상호간에 할 말이 다 있는 겁니다.

전에 공인회계사 징계위원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데 공인회계사 쪽에선 억울하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으면 답답해요. 아무리 꼼꼼하게 확인해도 기업들이 감추려고 하면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코오롱 문제도 회사측에서 여유사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해 놨다고 하고 예탁증서도 있어서 공인회계사가 이를 전화로 확인하니까 해당 금융기관 직접에서 '우리가 발행해 줬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데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이 써고 전화 건 곳에 있어서 무슨 은행 지점이라고 했더라는 겁니다. 제대로 되려면 기업이 부명해지고 지배구조도 향상되고 공인회계사들도 적절한 업무량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겠지요.

– 자체적인 내부감사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근본적으로 우리 문화와 관행이 바뀌어야 합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식당에 갈 때마다 "여럿이 음식을 주문하면 좌석을 그린 종이에 사람별로 싸장면, 우동, 짬뽕 등 주문한 메뉴를 정확히 적어 간 다음 맞게 가지오라"고 말하는데 그게 잘 안돼요. 대강 들고 가니 누가 뭘 시켰는지 헷갈리는 거지요. 오죽하면 술집계산서도 소사과 몇 개, 볼라 몇 병까지 모두 적는데 반해, 우리는 그런 걸 따지면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왔다고 그런니다. 금융사고도 윗사람이 잘 살피고 견제해야 하는데, 위에서 일일이 따지면 아랫사람이 싫어하니 패스워드도 주고 노장도 맡십니다. 내부통제가 있으면 뭐 합니까. '대충대충 넘어가는 문화',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 은행에서 심사를 너무 꼼꼼하게 하면 영업 담당자들이 반발한다고 합니다. 능력평가를 할 때 여전히 실적 위주로 하니까요. 최근엔 기업대출이 어려우니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주력한다고도 하고요. 그러나 금융이 선진화되려면 역할 분담이 잘되고 그에 따른 업무 영역이 지켜져야 하겠지요.

금융기관이 수익성만 추구한다면 전당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산업자금으로 연결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게 금융기관의 기본 소임인데, 손쉬운 주택담보대출만 취급하게 되면 그게 국가경제에 무슨 기여를 하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업금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많이 대출해준 은행에 대해서는 평가할 때 가점을 주고, 대출에 문제가 생겨도 적정하게 대출이 이뤄졌으면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담보가 부족한 기업도 현재 재무상태만 보지 말고 미래가치를 담보로 인정해줄 것을 금융기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대충대충 문화' 버리자"
동창회가 순혈폐쇄주의 센터가 되면 안돼

그런데 요즘엔 은행측도 답답하다고 합니다. 기업금융을 하려 해도 돈을 빌리려는 데가 없으니까요. 특히 대기업은 현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외면하고 있는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가 일어나야 금융기관에서 대출도 받고 자본시장에서 회사채도 발행하고 유상증자도 하는데 기업에선 적절한 투자처를 찾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잘 풀리지 않네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 나라가 편안해야 투자를 하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고들 하잖아요.

요즘 기업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몇 기업이 잘못한다고 해도 모든 기업과 기업인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실물부문의 성장 없이 금융부문만 혼자 잘 될 수 없다. 전체 경제 규모가 커져야 금융산업 규모도 커진다. 이럴 때일수록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을 리드해줘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 재경부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는데. 언제 기장 힘드셨는지요.

외환위기 때도 힘들었고, 금융실명제 실시단장으로 모든 구상을 했는데 시행하지 못했을 때도 힘들었습니다. 스스로 난파선의 선장이라고 했는데.

– 재경부를 떠나 ADB(아시아개발은행)와 세무대학에서 일하셨죠. 느낀 점이 많았을 듯한데요.

공직생활의 허무함을 많이 느꼈죠. 다른 분야에서 이 정도로 열심히 일했으면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이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정치적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경제가 진공 속에서 클 수 없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 외환위기 이후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옛날 관행대로 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 급격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신분에 따른 불안감, 이런 것이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부하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실력입니다. 우리 사회가 순혈폐쇄주의를 극복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동문, 선후배에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실력만이 경쟁력이다', 스스로 상품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배경이 없어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가진 자를 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 위원장님만의 업무 스타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윗분들께 결재 받으러 갈 때 1, 2, 3안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결론을 낸 다음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해야 하니 사인해 주십시오. 책임은 제가 집니다"라고 했지요. 처음엔 당돌하고 건방지게 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정했습니다. 저도 아랫사람들에게 그런 자세를 요구합니다. '경제란 선택과 집중인데 소신을 갖고 하자, 옷사람한테 미룰 생각은 하지 말자'며 업무에 임합니다.

– 이곳에 있으면서 '이것만은 만들어 놓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지금 금융부문은 자본이 국경없이 이동하기 때문에 시스템이나 관행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융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전문성, 도덕성, 글로벌 마인드입니다. 특히 도덕성이 문제인데요. 우수하다고 표창 받은 사람들이 금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개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댁은 어디세요.

방배동의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 부동산테크엔 별로 성공적이지 않으셨겠네요. (웃음) 빌라는 구입하는 순간부터 영원히 자기 집이라던데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ADB로 나가면서 집을 전세 놓았는데 계약기간이 맞지 않아 들어가지 못했지요.

– 따님도 동문이죠. 인문대를 졸업하고 방송국에서 PD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언론정보학과를 나와 SBS에서 일했습니다. 아쉽만한 조연출도 맡았지요. 지금은 회사를 그만 두고 미국 하버드대에 가 있습니다. 내년 초 로스쿨에 정식 입학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님도 미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으시죠.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원에서 개발경제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 대학 시절 총학생회장을 지내셨는데요.

우리 때는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이 모여서 총학생회장을 뽑았어요. 법대 학생회장 때 전체 학생회장도 겸했지요.

– 약주는 얼마나 하세요. 폭탄주는 몇 잔까지.

즐기지는 않지만, 좋아하는 분들이 마시자고 하면 몇 잔 마시는 정도입니다.

– 아직도 담배를 피우세요.

끊을 생각이 없습니다. 주위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요.

– 그럼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특별한 건 없고 산을 좋아하는데 요즘엔 자주 못갑니다. 아침 일찍 동네 산이라도 가면 좋겠는데, 조찬 모임이 많아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 서울고 출신들은 부드러워 카리스마나 리더십 부분에서 타교 출신보다 다소 떨어진다는 세평이 있는데, 큐위원장님은 두 가지 모두 뛰어나 후배들이 많이 따른다던데요.

(웃음)과찬의 말씀입니다. 학교마다 성격이 있긴 했죠. 저희 때 소위 일류학교라는 경기, 서울, 경복 중 경기고는 비교적 유복하거나 저명인사 자제들이 많이 갔고, 서울고는 전반적으로 중산층 이하 내지 서민층인 가정 출신들이 다녔어요. 그래서 화합과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공직생활을 하면서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대로, 윗분들은 윗분들대로 저와 함께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비결은 따로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윗분을 모실 때는 책임을 절대로 윗사람에게 전가하지 않았고 아랫사람들에겐 업무면서도 진솔하게 대했습니다. 어쨌거나 나이 들면서 자꾸 고개가 수그러집니다.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해서….

– 동창회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주 못 나가면서 동창회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외람된 것 같습니다. 다만 동창회가 순혈폐쇄주의를 지키는 하나의 센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우정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는 장이 되는 건 좋죠. 공적인 것을 떠나 사적인 부분에서 돕고 이끌어주는 것은 아름다운 미덕일 수 있습니다.

– 젊은 후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두 개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사물을 두 눈으로 보라는 것이다'라고요. 균형 있게 보라는 이야기죠. 제발 한쪽 측면만 보지말고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보는 능력을 키우라고 조언합니다.

〈정리= 金南旺기자〉

건강을 지킵시다

유산균이 장수비결의 기본

러시아의 유명한 과학자 일리야 메치니코프는 사람의 장에서 좋은 발효 작용이 일어나면 장수할 수 있다고 보고 했으며, 나쁜 발효, 즉 부패가 일어나면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좋은 작용에 기여하는 유익한 세균이 바로 유산균이다.

유산균은 올리고 당, 유당 등의 탄수화물 등을 대사해냄으로서 유산(젖산)을 만들어 내는 박테리아의 일종으로, 어머니 젖을 먹기 시작하는 때부터 우리 장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대개의 세균들은 기질(박테리아의 먹이에 해당함)을 대사할 때 물과 가스(이산화탄소, 황화 수소 등)를 부산물로 만들어 내지만, 유산균은 이런 기질들을 대사할 때 유산(젖산)을 만들어 내어 장내 환경을 청결하게(정장기능) 유지한다.

장운동이 저하된 변비의 경우에는 유산균의 작용에 의해 장내 산도(pH)가 약산성으로 유지되면서 장운동이 촉진되며, 설사가 심한 경우에는 유해한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여 이를 호전시키기도 하는 양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장암의 발생이 유해한 세균의 과성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산물들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도 있어, 유해한 세균을 억제하는 유산균이 정말 장수의 근본이 될 근거가 많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모로 유익한 유산균은 어머니 젖을 떼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성인이 되어서는 영아기의 1백분의 1 혹은 1천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장에서 유산균이 우세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은 간단하다. 유산균에게 먹이를 주거나 혹은 유산균 자체를 보강해주는 것이다. 유산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인데, 우유를 먹었을 때 설사, 방귀, 복통 등이 있는 사람은 아주 적은 양의 우유부터 매일 꾸준하게 먹으면서 조금씩 그 양을 늘려 가면 대개는 2백㎖까지는 별 불편함 없이 먹을 수 있다.

또, 유산균의 먹이로 좋은 것으로는 흔히 올리고당이라고 말하는 함성 다당류가 있다. 유산균 자체를 보강하는 방법은 요구르트, 분유에 타서 먹이는 정장제, 치즈 등을 먹는 것이다. 유산균의 증식을 저해하는 것들로는 항생제 남용, 흡연, 음주, 육식만 즐기는 것 등이 해당된다.

가끔 유산균을 섭취하기 위해 가정에서 발효유를 만들어 먹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정장기능이 좋은 유산균들은 혐기성 박테리아이므로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야만 생산될 수 있어 가정에서 만들어 먹는 유산균은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연락처 : 2112-5641)

朴 敏 晶
(의학87 93)
모교 병원 강남센터
소화기내과 교수

나의 건강법

경쾌하게 걷고 술·담배도 즐겁게

申 東 憲(건축49입)화백·한국클리넷협회 명예이사

방송이나 신문 등의 인터뷰에서 흔히 "연세에 비해선 퍽이나 건강하게 보이시는데,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하는 질문을 받을 때면 한결같은 필자의 답변은 이렇다.

"나의 건강의 비결은 의사가 하지 말라는 일은 다 하고, 의사가 하라는 일은 안 한다."

어쩌면 농담 같기도 하고, 역설적으로도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나로선 진지한 답변이다. 필자도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석 달이 지나면 나이가 80, 즉 산수(傘壽)를 맞게 되니 어지간히 긴 세월을 살아온 셈인데, 여태까지는 감기 이외의 자질구레한 질환에도 걸린 일 없이 건강하게 지내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연배에게 주는 의사의 충고는 "그 나이가 되면, 술도 삼가고 담배도 끊고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하라"는 것이다. 모처럼의 충고를 하는 의사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와서는 그 충고를 한번도 지킨 일이 없다.

내가 술과 담배를 시작한 것은 중학교 3학년 초였으니, 음주와 찍연의 경력이 어언 62년이 됐고, 그간 금주나 금연을 작심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지금도 술·담배엔 부지런하여 매주로는 미니멈 2병 정도 매일 마시고, 담배는 약간 양을 줄여서 하루 3분의 2갑 정도 꾸준히 계속하고 있으니, 의사의 충고는 매번 담배 연기와 함께 사라져버리기 마련이다.

또 운동을 하라는 충고는, 물론 달리기나 철봉 따위의 과격한 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저녁으로 산책 따위의 규칙적인 적당한 '에서사이즈'를 권하는 것이겠는데, 이것도 철저히 안 지키니 말하자면, 하라는 짓은 안 하는 셈이다.

나의 직업이 종일 집에 박혀서 그림이나 그리고 글이나 쓰는 일이다 보니 당연히 운동부족이 되기 십상이겠지만 그 '부족'을 보충하는 방법이 나에게도 한 가지는 있다. 될 수 있는 대로 편한 자가용차나 택시는 피하고 전철 따위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나도 30여 년 전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했고, 몇 번 기한을 연장시키면서 아직도 유효한 면허증을 갖고 있지만 그간 차를 시내에서 몰아본 일은 한번도 없다. 이유는 취중운전에 끌리기가 쉽기 때문이다. 즉 술이나 자가용차나 양자택일에서 전자를 택한 것이다.

또 한 가지 내가 명심하는 것은 지하철역까지는 도보로 가는데, 활발한 걸음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30여 년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서 '활발한 걸음(brisk walking)'은 건강에 유익하지만, '편안한 걸음(amble walking)'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기사에서 계몽되었기 때문이다. 활발한 걸음은 특히 살이 두꺼운 엉덩이 부분의 모세혈관에 고이는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독자 제현도 한번 시행해 봄이 여하?

'우수인재 채용박람회' 열려

1천2백여명 몰려 취업난 실감

모교(총장 鄭雲燦)는 지난 9월 8~9일 이틀간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2005 서울대 우수인재 채용박람회'를 개최, 1천2백여 명의 취업희망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채용박람회는 각 기업들이 현장면접 등을 실시해 모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의 장이 됐으며, 1·2학년을 포함한 저학년들에게는 장기적 진로안식 및 적극적 취업 준비를 위한 기회가 마련됐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보다 규모를 줄이는 대신 50여 개 업체를 엄선했으며, 모든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모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행사 첫날 문화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는 鄭雲燦총장, 노동부 金大煥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생의 기업내 관계 패턴' '서울대생의 이직율' 등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서 鄭雲燦총장은 모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대생들이 우수한 것은 대체로 사실이나 그 기대치가 높아 구직활동이 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취업률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며 "올 2월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1백%에 가까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교 진로취업센터(소장 尹明燮)는 직성감사,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열어 직업 선택과 취업 준비에 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해 학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취업컨설팅관을 방문해 자기소개서에 대한 상담을 받은 강주란 양(자구환경시스템 석사과정)은 "전체적인 틀을 잡는 것부터 단어를 선택하는 문제까지 상세하고 전문적인 지도를 받아 실제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채용박람회가 끝나도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사기간 중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몰려 성황을 이룬 한 기업의 관계자는 "이제는 서울대생이라는 프리미엄을 취업시장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며 "1학년 때부터 자기 적성과 취업희망 기업에 맞춰 진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타대학 졸업생들보다 비교적 적응력 및 협동심이 약해 대학 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교 소식

알앤엘바이오 羅珽燦대표

수의대 발전기금 10만주 기증

알앤엘(RNL)바이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羅珽燦동문은 지난 9월 12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알앤엘바이오 상장 기념식에서 모교 수의대에 출기세포와 안정성 평가 등의 연구에 써달라며 羅동문의 개인 주식 10만주 기부 약정을 맺었다.

82년 모교 수의학과에 입학, 86년 졸업한 羅동문은 알앤엘생명과학을 설립, 모교 수의대와 산업협력을 통해 천연물 신약과 줄기세포 등을 연구 개발해 오고 있다.

羅동문은 "그동안 모교 수의대와 공동연구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주식을 기증했다"며 "자금이 부족해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농공학과 출신 李鎭雨동문

농생대 발전기금 5천만원 쾌척

지난 9월 8일 李鎭雨(농공학 60-66)동문이 모교 발전기금으로 5천만원을 쾌척했다.

괌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해 오다 최근 은퇴한 李동문은 "재학시절 어려운 집안형편 때문에 3·1장학금을 받아 겨우 학업을 마칠 수 있었는데 이 장학금이 다른 학우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을 그동안 미안하게 여기다가 사업에 성공한 뒤 그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이 기금을 마련했다"고 기부의 뜻을 밝혔다.

이 기금은 李동문의 뜻에 따라 앞으로 농생대 지역시스템공학과의 학술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경영대학

한국형 MBA 개설

경영대학(학장 玄相炯)은 내년부터 '한국형 경영학석사(MBA)과정'을 개설한다.

기업 실무 경험이 있는 2백여 명의 학생을 선발해 한국 기업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MBA를 배출할 계획으로 신설되는 이 과정에서는 한국 기업의 경영 사례를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자체적인 수업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은 2년 정규과정으로 수업의 절반이 영어로 진행된다. 재학생은 중국어, 일본어 등 제2의 국어 교육을 받으며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예상 등록금은 한 학기당 1천5백만원으로 비싼 편이며 최소한 54학점 이상을 받아야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초기에는 2백여 명의 학생을 모집하지만 장기적으로 4백여 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교수진도 1백여 명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101 학생군사교육단

'최우수 학군단' 차지

모교 학생군사교육단(101 학군단)이 지난 8월 31일 끝난 하계 입영 훈련에서 전국 대령급 학군단 51개 중 '최우수 학군단'으로 선정됐다.

1999년부터 실시된 최우수 학군단 선정 과정에서 모교 학군단은 지난해까지 단 1차례도 20위 안에 들지 못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1위의 영광을 차지하게 됐다.

모두 3차례 4주씩 실시된 훈련에서 모교 학군 사관후보생 1백38명이 1차와 3차 훈련에 참가했으며 이중 4명이 개인우수상을 받고 2명이 사격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대대장 후보생인 최우석(체육교육과 4년)군이 개인우수상과 사격우수상을 받아 '2관왕'의 뛰어난 성적을 보여줬다.

한편 최 군은 작년 모교 야구부가 창단 27년만에 1무 1백99패 끝에 감격의 첫 승을 거두는데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모교 학군단장 朴永緣대령은 "서울대생들이 머리는 좋지만 체력과 의지력이 떨어지고 개인주의적이고 교만하다는 통념을 깨 버린 쾌거"라며 "생도들 스스로 공동 목표를 설정해 함께 노력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제101 학생군사훈련단'이라는 이름으로 1961년 창설된 모교 학군단은 지금까지 7천6백63명의 장교를 배출했다.

朴駱圭박물관장

지난 9월 1일 박물관장에 인문대학 미학과 朴駱圭교수(사진)가 선임됐다.

신임 朴관장은 73년 모교 인문대 미학과에 입학, 77년 졸업한 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동아대 조교수를 역임하고 87년 모교에 부임, 모교 인문대 학생담당 부학장, 한국미학회 총무간사 등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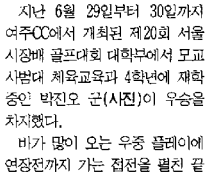
공대 金道然학장

지난 9월 11일 공과대학 학장에 재료공학부 金道然교수(사진)가 선임됐다.

신임 金학장은 70년 모교 재료공학과에 입학, 74년 졸업한 후 KAIST에서 석사, 프랑스 블레즈 파스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야주대 조교수를 역임하고 82년 모교에 부임, 미국표준연구소 초빙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체육교육과 박진오 군

서울시 골프대회 우승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여주CC에서 개최된 제20회 서울시장배 골프대회 대학부에서 모교 사범대 체육교육과 4학년에 재학중인 박진오 군(사진)이 우승을 차지했다.

비가 많이 오는 우중 플레이에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을 펼친 끝에 우승한 박 군은 지난 98년도에 모교 골프부를 창단했고, 2학년 때는 '비즈니스골프'라는 책을 번역, 출판하기도 했다.

대학생이 돼서야 비로소 라운드를 시작한 박 군은 그동안 골프를 치기 쉽지 않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등교하기 전 아침시간을 십분 활용해왔다.

박 군은 "그동안의 훈련과정을 통해 골프도 공부처럼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골프는 공부와는 달랐다"며 "몸에 밴 골프의 좋은 습관이 좋은 성적으로 연결된다"고 말하면서 노력을 강조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14명을 시작으로 창단된 모교 골프부는 현재 1백여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1, 2대 골프부 회장을 맡았던 박 군은 "앞으로 순수 아마골퍼로 남길 바란며 대학교수가 돼 후학 양성에 힘을 쏟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李)

종합교육연구단지 기공식

인문·사회분야 연구시설 갖춰

모교는 지난 9월 12일 관악캠퍼스 경영대 옆 테니스장 부지에서 BK21 3단계 사업인 종합교육연구단지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을 비롯해 모교 鄭雲燦총장, 보건대학원 金花中교수(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대학원 동창회 申碩釪회장, 본회 許瑄사무총장, 金熙喆관악구청장 등 60여 명의 교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鄭雲燦총장은 식사를 통해 "서울대는 SCI 논문게재 건수 기준으로 '세계 32위'를 점하고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며 "이 종합교육연구단지는 이러한 연구성과에 걸맞는 첨단교육연구시설로 자리잡아, 탁월한 연구성과를 낸 교수들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이 쾌적한 환경친화적 건물공간에서 더욱더 열심히 연구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나라의 명운이 걸린 대규모 교육인프라 구축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돼 교육당국과 대학이, 그리고 국내외 산업체와 지역사회 모두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종합연구단지가 대학원 연구·교육의 강화와 국내외 대학교육의 커다란 금자탑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2007년 8월 완공 예정인 종합교육연구단지에는 대학원 교육연구동 및 생활과학대학, 행정대학원, 보건대학원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그동안 대학원 교육연구동은 1·2단계 기공식을 가진 바 있으며, 이번 기공식으로 모교는 사업 마지막 단계인 인문·사회분야의 교육연구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됐다.

모교 해외홍보에 적극 나서

'더 타임스' 등 유력 일간지 방문

모교 盧慶秀대외협력본부장이 지난 9월 6일 영국 런던을 방문, 매년 세계 상위 2백개 대학순위를 발표하고 있는 유력 일간지 '더 타임스' 등 2개 기관의 대학평가팀 책임자를 만나 모교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번 방문에서 盧본부장은 "수십 년 전 받은 노벨상을 매년 똑같이 평가점수에 반영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면서 "아시아 대학들도 최근 우수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黃禹錫석좌교수의 최근 연구성과 등이 상세히 수록된 홍보자료를 전달한 盧본부장은 "평가기관들이 우리 주장에 충분히 공감했다"며 "이해의 폭이 넓어진 만큼 앞으로 합리적인 평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 학자 교육평가 63위

교원 대 학생비 제일 낮아

오는 10월말에 세계 대학순위를 발표할 예정인 더 타임스는 지난해 모교를 1백19위로 평가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중국 상해교통대가 발표한 '2005 세계 500대 대학'에 따르면 모교가 101~152위권에 속했다.

더 타임스는 교육 평가, 연구활동, 신입생 수준, 교원 대 학생 비율, 우등생 비율, 졸업생 취업률 등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했는데, 모교는 세계 학자들의 교육 평가에서 63위, 논문의 양과 질에서 100위, 교원 대 학생 비율에서 170위를 차지해 평균 119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해교통대는 1911년부터 2002년까지의 대학별 노벨상 수상자 배출인원, 각종 유명논문지에 기고한 학술논문수와 논문에 인용된 실적, 국제적으로 유명한 교수의 리쿠르트 여부를 비롯해 대학·학생·교수진의 학술활동 등으로 평가했는데, 1946년에 개교한 모교에게는 공정한 평가가 아니었다는 지적이 있다.

공과대학

첫 외국인 정규교수 채용

공과대학(학장 金道然)은 모교 최초 외국인 정규교수로 로버트 이안 매케이 교수(사진)를 채용했다.

호주에서 20년 동안 대학강단에 서다 올 가을학기 전기·컴퓨터공학부 부교수로 부임한 매케이 교수는 지난해 워크숍에 참석 차 서울과 부산을 방문했을 때 모교로부터 교수임용 제의를 받았었다.

그동안 많은 외국인들이 초빙교수로 모교에 임용되기는 했으나 이번처럼 전임교원으로 발령 받기는 그가 처음이다.

모교의 학생 출석률이나 수업태도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 매케이 교수는 이번 학기에 '자료구조론'과 '지식표현·추론' 등 두 과목을 맡아 가르친다.

매케이 교수가 관심을 두고 연구하는 분야는 인공지능(AI) 중에서도 '진화연산'이다. 이는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한 생물 진화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한 최적 해법을 찾아 나가는 전략을 찾는 연구다.

호주국립대(ANU)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영국 브리스톨대에서 '계산이론(theory of computation)'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호주 연방 과학·산업 연구기구(CSIRO)에서 근무하고 1985년부터 캔버라 소재 뉴사우스 웨일스 호주 국방대(UNSW at AFDA) 교수로 재직했다.

관악캠퍼스는 공사중

친환경 캠퍼스 건설

모교는 지난 7월부터 경영대에서 중앙도서관에 이르는 1.2km 구간에 물빠짐이 우수한 1만3천㎡ 분량의 흙블록 등 친환경 바닥재를 까는 1단계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2003년 10월 개교기념식에서 鄭雲燦총장이 '에코 캠퍼스' 선언 후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 캠퍼스' 건설의 일환이다.

1970년대 조성된 관악캠퍼스는 성냥갑 모양의 천편일률적인 건물이 산자락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는 전형적인 개발독재의 전형이었다. 1990년대 들어 붉은색 벽돌의 경영대와 건물 전체가 유리로 이루어진 301동 등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으나 정작 학생들이 강의실을 찾아다니는 콘크리트 도로에 대한 고려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亨)

정년교수 프로필

후학양성에 한평생 노고에 감사합니다

모교에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친 교수 20명의 정년식이 지난 8월 31일 열렸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의 삶과 그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분들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한다.

許昌燮교수
·독어독문학

58년 모교 독어독문학과 입학, 63년 졸업. 독일 뮌헨대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2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독어독문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뷔히너학회장, 모교 인문대 학생담당학장보 등을 역임했다.

尹以欽교수
·종교학

60년 모교 종교학과 입학, 64년 졸업. 미국 Vanderbilt대에서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한국종교학회장, 한국종교사회연구소 이사장, 모교 인문대 교무담당 학장보, 종교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洪元卓교수
·경제학

58년 모교 경제학과 입학, 62년 졸업. 미국 콜롬비아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과 조교수를 역임하고 77년 모교 부교수로 부임, 한국주택은행 비상임 이사, 모교 국제지역원장, 경제연구소장 등을 맡은 바 있다.

秋光永교수
·언론정보학

58년 모교 국사학과 입학, 63년 졸업. 미국 노스텍사스주립대 신문학 석사, 텍사스대 신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 신문학과 부교수로 부임, 한국방송학회장, 모교 언론정보연구소장, 한국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鄭海文교수
·생명과학

58년 모교 생물교육학과 입학, 62년 졸업.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이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77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한국생물과학협회장, 한국동물학회장, 한국유전학회장, 모교 생물학과장, 생물교육과장, 생물교육과 동창회장 등을 역임했다.

朴貞浩교수
·간호학

58년 모교 간호학과 입학, 63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 이화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67년 모교에 부임, 대한간호협회장, 임상간호사회장, 과학기술단지총연합회 부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위원, 모교 간호대 학장 등을 역임했다.

尹鐵喆교수
·경영학

58년 모교 물리학과 입학, 63년 졸업.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영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72년 모교에 부임, 독일 만하임대 연구교수, 모교 경영대 경영정보연구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경영학의 진리체계', '경영학적 사고의 틀' 등이 있다.

鄭希錫교수
·산림과학

60년 모교 임학과 입학, 64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73년 모교에 부임, 미국 오리건주립대 부교수, 산림청 임업연구원 겸 연구관, 한국목재공학회장, 모교 임업과학연구소장, 임산공학과장, 연습림장 등을 역임했다.

全在根교수
·농생명공학

57년 모교 농화학과 입학, 62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73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국제 장학 및 식품협회(IAEF) 한국대표,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이사, 한국산업식품공학회장, 모교 식품공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朴孝根교수
·식물생산과학

59년 모교 농학과 입학, 63년 졸업.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에 부임, 농림부 종자위원회 위원장, 채소종묘분과위원회 위원장, 모교 중앙도서관장, 한국원예학회장, 한국종자연구회장, 중앙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許勝一교수
·역사교육

60년 모교 국사학과 입학, 64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서양사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건국대 사학과 조교수를 역임하고 79년 모교에 부임, 한국서양고전학회장,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장, 키케로학회장, 모교 사회교육연구소장 등을 맡은 바 있다.

鄭世九교수
·국민윤리교육

59년 모교 국사학과 입학, 64년 졸업.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석사, 미국 플로리다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천교육대 전임강사, 상명여대 조교수 등을 역임하고 79년 모교에 부임, 한국윤리학회장,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장 등을 맡은 바 있다.

張邦浩교수
·교육학

59년 모교 교육학과 입학, 63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 미국 스탠포드대 교육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원 등을 역임하고 74년 모교에 부임, 한국교육원리학회장, 모교 교육학과장, 교육매체제작소장 등을 맡은 바 있다.

韓弘栗교수
·수의학

59년 모교 수의학과 입학, 63년 졸업. 모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 일본 아사부대에서 수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2년 모교에 부임, 대한수의학회장, 한국수병학회장,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장, 모교 동물병원장 등을 역임했다.

金潤光교수
·약학

61년 모교 약학과 입학, 65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 일본 교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68년 모교에 부임, 대한약학회 편집부 간사, 분석분과회장, 국립환경연구원 연구관리위원회 위원, 모교 약학연수원장, 약학교육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徐友錫교수
·작곡

60년 모교 작곡과 입학, 64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안동교육대에서 전임강사를 역임하고 72년 모교에 부임, 미국 하버드연경학회 초청교수, 모교 서양음악연구소장, 음대학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문학과지성사 대표를 맡고 있다.

崔國鎭교수
·외학

58년 모교 의학과 입학, 64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외과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70년 모교에 부임, 외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유방건강재단 이사장, 대한암학회장, 대한외과학회장, 아시아유방암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金潤經교수
·의학

58년 모교 의학과 입학, 64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72년 모교에 부임, 모교 병원 교육연구부장, 임상의학연구소장, 대통령 주치의, 대한내과학연구지원재단 이사장, 대한암학회장, 국립암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李弘根교수
·환경보건학

56년 모교 토목공학과 입학, 64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공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68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후 수질관리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교 환경보건학과장, 국민보건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林成森교수
·치의학

58년 모교 치의학과 입학, 62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70년 모교에 부임, 미국 미시간대 객원교수, 펜실베이니아대 객원교수, 영국 가이병원 객원교수, 대한치과보존학회장, 모교 병원 치과진료부 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 가족 故 徐章錫 前경기고 교장

장남·차남·3남, 公人으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 한번도 거른 적 없어"

경기고등학교 졸업식 날, 徐章錫(법학47졸 前경기고 교장)동문은 학우들과 함께 교실 칠판에 평생동안 실천할 '명언'을 하나씩 남겼다. 徐동문은 한자로 크게 '孝'이라는 글자를 썼다. 어릴 적 꿈이었던 '교육자'가 되어 늘 소망을 가지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003년 9월 안타깝게도 가족들의 곁을 떠난 徐章錫동문은 그러나 50년간 교직에 봉직하며 그가 가르친 2만2천여 명의 제자들과 자녀들에게 '소망'을 심어준 참된 스승이자, 아버지로 기억된다.

경기고 학창시절, 통학버스에서 매번 마주친 고운 외모의 여학생이었던 朴商義(예과48졸)동문을 만나 4남1녀를 뒀으며, 그 중 장남 徐大源(외교69-73 국가정보원 해외분야 제1차장)동문, 차남 徐東源(전자공학70-74·법학76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동문, 3남 徐文源(농학74-79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본부장보)동문이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또 사위 吳世泳(전자공학70-74 포항공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동문, 둘째 며느리 申惠璟(건축73-77 중앙일보 선임전문위원)동문과 徐大源동문의 장녀인 徐東希(영어영문96-01 보교 국제대학원 석사과정)동문이 모교 출신이다.

徐章錫동문의 자녀들은 "부친께서는 타고난 교육자셨고,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신념 외엔 다른 길을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어머니와 약혼하시바자 '여자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당시 사범대를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어요. 특히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교육 다음으로 중요시 여겼으며, 한번도 가정예배를 빼먹으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어머니와 함께 온 가족이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를 봅니다. 같이 여행가거나 악속을 따로 잡지 않더라도 어릴 적부터 해온 우리 가족만의 가장 큰 행사이기에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한다.

앞줄 좌로부터 첫 번째 徐大源, 세 번째 徐章錫, 다섯 번째 朴商義. 일곱 번째 申惠璟, 아홉 번째 徐東源동문. 뒷줄 좌로부터 세 번째 徐東希, 일곱 번째 吳世泳, 여덟 번째 徐文源동문.

어릴 적부터 수재로 불리웠던 徐章錫동문은 모교 법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 해 경기고 교사로 부임, 경기고등학교 교장, 서울시 부교육감, 보이스카우트 서울연맹위원장, 서울교대 학장, 유스호스텔 협회장, 서울YMCA 이사장 등을 맡았으며 정년 후에도 10여 년간 대학 강단에서 후학들을 가르쳤다. 28년간 경기고에서 교사 및 교장으로 봉직하는 동안에는 학교 생활관을 지어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Mentor프로그램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시키는 등 청소년 지도를 위한 혁신적인 교육사업을 펼쳤다. 특히 교사시절, 가난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하거나 진로문제로 방황하던 제자들과 집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우는 등 제자 한 명, 한 명에게 헌신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사교적이고 외국어에 능통한 장남 徐大源동문은 바둑과 야구에 일가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99년과 2000년 뉴욕마리톤, 그리고 2001년 헝가리마라톤대회 풀코스를 완주한 만능스포츠맨. 남동생 徐東源동문 역시 바둑에 취미가 있어 지금도 각종 바둑대회에서 소속기관 대표로 출전해 서로의 기량을 과시한다고.

외무고시 합격 후 외무부 국제연합국장, 주유엔 차석대사, 헝가리 대사 등을 역임한 徐大源동문은 치밀한 업무능력과 친화력을 겸비한 다자외교분야 정통으로 꼽힌다. 특히 유엔 대사시절, 남북이 공동으로 UN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데 일등공신으로 활약했다. 국가정보원으로 자리를 옮긴 徐동문은 그동안 쌓은 외교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세계적인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차남 徐東源동문은 학구적인 스타일의 전문행정가로서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두루 거치며 공정거래·예산·금융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개혁성향으로 해당분야의 혁신에 많이 참여했으며, 특히 재벌개혁의 실무책임자로서 현행제도의 근간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 현재 공정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등 중요한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의 주심을 맡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구적인 형제들과는 달리 환경과 농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3남 徐文源동문은 농수산물 수·출입분야에서 근무한 뒤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와 코스닥·한국선물거래소·코스닥위원회가 합병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본부장보를 맡고 있다.

차남 徐東源동문과 고교 및 대학교 동기동창인 사위 吳世泳동문은 전형적인 학자이자 미래산업인 로봇 및 신경컴퓨터분야에서 초석을 다진 공학박사로,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지난 10월 3일, 徐章錫동문의 묘소를 찾은 徐동문 가족은 이구동성으로 "굳건한 신앙심과 교육에 대한 끝없는 열정, 그리고 이웃과 나누며 아끼는 삶을 살라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가족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表)

徐章錫동문의 서울대 가족

부인
朴商義(예과48졸)
장남
徐大源(외교69-73)
차남
徐東源(전자공학70-74·법학76졸)
3남
徐文源(농학74-79)
사위
吳世泳(전자공학70-74)
며느리
申惠璟(건축73-77)
손녀
徐東希(영문96-01)

동 정

수 상

▲梁巨煥(토목공학50-57 동림컨설턴트 회장)=지난 8월 9~11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7차 아태지역ITS(첨단지능형 교통체계)대회에서 공로상 수상.

▲金禹昌(영문58졸 고려대 명예교수)=지난 10월 11일 서울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제19회 仁村賞(인문사회문학부문) 수상.

▲兪忠植(상학55-61 동아제약 부회장)=지난 9월 29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2005 한국광고주대회 - 광고주의 밤' 행사에서 공로상 수상.

▲李長茂(기계공학63-67 모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지난 9월 16일 서울 반포4동 학술원 대회의실에서 제50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자연과학부문) 수상.

▲曺正基(교육학63 67 前산업대 교수·한국산업교육개발훈련원 고문)=지난 8월 26일 전남 광주고교 강당에서 '자랑스런 光高人賞' 수상. 별동문은 공군사관학교, 고려대, 성균관대, 국방대학원 등에서 9개 학위를 취득한 바 있음.

▲嚴基永(사회70-74 MBC 특임이사·본보 논설위원)=지난 9월 16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토목 기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토목학회로부터 제4회 송산상 수상.

▲黃禹錫(수의학72-77 모교 수의학과 석좌교수)=지난 10월 11일 서울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 강당에서 제19회 仁村賞(자연과학부문) 수상.

▲韓武榮(토목공학73-77 모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오는 10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자원환경연합회의에서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세계환경공학·과학교수협의회로부터 최우수 논문상 수상 예정.

▲郭義宗(약학73-77 SK케미칼 생명과학연구소 연구실장)=지난 9월 12일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제14회 다산기술상(대상) 수상.

▲金敏基(회화78졸 극단 학전 대표·작곡가)=오는 11월 15일 서울 소피텔엠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파라다이스상위원회가 수여하는 2005 파라다이스상(문화·예술부문) 수상 예정.

▲金東弼(화학공학76-80 한화석유화학 여수공장 부공장장)=지난 9월 12일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제14회 다산기술상(기술상) 수상.

▲李南麒(철학81졸 모교 철학과 교수)=지난 9월 16일 서울 반포4동 학술원 대회의실에서 제50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인문사회과학부분) 수상.

▲金進午(사회복지83-91 보건복지부 혁신인사기획관)=지난 9월 13일 영국 버밍엄대 사회정책학과에서 작성한 박사학위 논문이 2005년 버밍엄대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돼 한국인 최초로 '애슐리상(Ashley Prize)' 수상.

▲白盛喜(식품영양90-94 모교 생명과학부 교수)=오는 10월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로부터 제2회 마크로젠 신진과학자상 수상 예정.

인 사

▲李宇嘉(행정54-58 前경남대 총장)=지난 9월 7일 경남신문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

▲李元燮(의학56-62 인제대 일산백원장 겸 비전21 심장혈관센터 소장)=지난 9월 1일 백중앙의료원장에 선임.

▲許鎭喜(금속공학59-63 일진그룹 회장·본회 부회장)=지난 8월 29일 서울 마포 홀리데이인 서울호텔에서 열린 한국·코스타리카 친선협회 창립모임에서 초대 회장에 선임.

▲李容勳(법학59-63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국회 인준을 거쳐 지난 9월 26일 제14대 대법원장에 취임.

▲朴容晟(경제59-65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국제유도연맹 회장·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상대동창회장·본회 부회장)=지난 9월 5일 이집트 카이로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제유도연맹(IJF) 정기총회에서 3선 회장에 선출.

▲朴範珍(정치60-64 前국회의원)=지난 8월 31일 한성디지털대 제3대 총장에 취임.

▲沈玟璨(사회60-68 前KBS 대구방송총국장)=지난 8월 26일 경북 경산시 대경대학 학장에 취임.

▲金正國(행정61-65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총장)=지난 9월 5일 몽골국립농업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명예교수에 위촉.

▲魯貞善(건축62-66 서울산업대 교수)=지난 9월 1일 2년 임기의 서울산업대 주력대학원장에 취임.

▲李祥馥(약학62-66 부산사회체육센터 이사장)=지난 9월 16~2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9차 세계사회체육연맹(TAFISA) 총회에서 4년 임기의 회장에 선출.

▲李泰植(외교64-70 외교통상부 제1차관)=지난 8월 29일 제21대 주미 대사에 내정. 현재 미국 정부의 아그레망 절차가 진행 중이며, 10월 중에 부임 예정.

▲鄭鎭燦(경제66-70 모교 총장)=지난 9월 9일 한국경제학회 회원을 상대로 한 우편투표 결과 수석부회장(차기 회장)에 당선. 내년 2월 회장에 취임 예정.

▲趙東成(경영67-71 모교 경영학과 교수)=지난 9월 5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민간기구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의 글로벌 성장기업 자문위원에 위촉.

▲朴在甲(의학67-73 국립암센터 원장)=지난 9월 15일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제64회 일본암학회 학술총회에서 명예회원에 추대.

▲鄭夢準(경제70-75 국회의원·울산대 이사장·본회 부회장)=지난 9월 14일 서강대 경영대 겸임교수에 위촉.

▲徐南洙(철학71-75 前모교 사무국장·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지난 9월 5일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에 임명.

▲李喜先(독문75졸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부 연구관)=지난 9월 21일 주스페인 대사에 임명.

▲金英薰(행정71-75 대성그룹 글로벌에너지네트워크 회장)=지난 9월 8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세계에너지협의회(WEC) 집행이사회에서 부회장에 선출.

▲金熙玉(신대원76졸 서울동부지검장)=지난 9월 6일 법무부 차관에 임명.

▲羅重植(행대원77졸 경성대 교수)=지난 8월 31일 부산 경성대 제9대 총장에 선임.

▲李範九(의학73-79 가천의대 교수)=지난 9월 14일 가천의대 길병원 신료부원장에 선임.

▲鮮于泳(법학74-78 법무부 감찰관)=지난 9월 9일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

▲郭沃鎬(환대원75-80 前환경부 장관·환대원동창회장)=지난 9월 21일 한국수자원공사 제11대 사장에 취임.

▲姜忠模(기악79-83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최근 한국인 최초로 쇼팽 국제피아노콩쿠르(10월 2~24일·폴란드 바르샤바) 심사위원에 위촉.

▲崔炳甲(영어교육80-84 前반포중 교감)=지난 9월 1일 45세 최연소로 구로중학교 교장에 임명.

▲鄭翼玉(행대원88졸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장)=지난 9월 12일 노동부 정책홍보관리본부 홍보관리관에 임명.

▲尹昌國(AIP 8기 前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건설본부장)=지난 9월 1일 임기 3년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감사에 선임.

행 사

▲李吉女(의학51-57 경원대 총장·가천문화재단 이사장·본회 부회장)=지난 9월 29일 가천의대 길병원 가천홀에서 제7회 심청효행상 시상식 개최.

▲姜仁淑(국문52-56 學仁문학관장)=지난 9월 10일 서울 현창동 영인문학관에서 제7회 문인작품 낭독회를 개최하고, 10월 23일까지 '김상옥 시인 遺品·遺墨展'으로 제11회 정기전시회 개최 예정.

▲金哲洙(법학52-56 모교 법학부 명예교수·학술원 회원·본보 논설위원)=지난 9월 22~25일 서울대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과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헌법학자대회 2005' 개회식에서 기조연설함.

▲金承業(의학54-60 아주대 석좌교수 겸 뇌진환연구센터 소장)=지난 10월 1일 수원 아주대 병원 강당에서 한국줄기세포학회 창립총회와 심포지엄 개최.

▲金璟東(사회55-59 모교 사회학과 명예교수·학술원 회원)=최근 문학사상 9월호에 원고지 2백장 분량의 중편소설 '광기의 색조'를 발표함으로써 소설가로 데뷔.

▲南仲九(정치58-64 동아일보 21세기 평화연구소장·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이사장·본보 논설위원)=지난 9월 9일 서울 관훈동 신영기금회관에서 창립 28주년 기념행사 개최.

▲鄭玩鎬(생물교육58-63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장)=지난 9월 3일 서울 성산동 난지천공원에서 '자연관찰탐구대회', 9월 10일 봉천7동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에서 '과학탐구실험대회' 개최.

▲陳松子(조소64-68 한국여류조각회 회장)=지난 9월 22~29 서울시립미술관 분관에서 70여 명의 작품으로 '여신들, 아비없는 자식을 낳다 – 흙으로 돌아보는 30주년전' 개최.

▲李惠仁(회화64-68 홍익회 회원)=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서울 관훈동 갤러리 아트링크에서 아크릴, 유화 작품으로 전시회 개최.

▲盧成泰(경제65-69 한국경제연구원장)=영문 계간지 'Seoul Journal of Economics' 창간 18주년을 맞아 지난 9월 23일 서울대 벌디미디어강의동에서 '거시경제 환경 변화와 화폐금융 정책'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 개최.

▲文緡仙(기악75-79 유림 양상블 맴버·플루티스트)=지난 9월 24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즈넉, 슬호프, 메르카단테 등의 작품으로 플루트 독주회 개최.

▲張永鎭(국악75-80 민주평통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장)=지난 8월 31일 경기도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제1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출범식 개최.

▲鄭妍姬(조소78-82 모교 강사)=지난 9월 7~13일 서울 관훈동 모란갤러리에서 'Boat, a Leaf – 一葉漂舟'를 주제로 제6회 개인조각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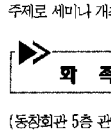
▲林慶圓(기악81-85 성신여대 교수·첼리스트)=지난 10월 6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베토벤, 포퍼, 생상스 등의 작품으로 첼로독주회 개최.

▲高賢珠(기악83-87 모교 강사·하프시코디스트)=지난 10월 15일 서울 사간동 금호미술관 리사이틀홀에서 바하의 건반음악 전곡을 연주하고 해설함.

▲朴敏姬(기악84 88 파이프오르간 연주자)=오는 11월 21일 서울명동성당에서 멘델스존의 작품으로 파이프오르간 연주회 개최 예정.

▲鄭載潤(기악83-89 모교 강사·첼리스트)=지난 10월 1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비올리스트 金成愿(기악92-96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동문 등과 함께 가야 현악4중주단 제6회 정기연주회 개최.

▲崔烈坤(ACAD 6기 한국교육삼락회 총연합회장·동북아 교육문화교류협회장)=지난 8월 23일 일본 히로시마시민케리리에서 동북아 3개국 6개 도시 아동그림 3백여 점으로 제12회 동북아시아 아동화 교류전 개최.



▲朴寬用(ACAD 18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지난 9월 14일 서울 필래스호텔에서 모교 국제대학원 左承喜(경제67 71)초빙교수를 초청, '한국경제의 활력-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 개최.

와 족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회촉을 밝힐 동문)

*박상훈(신림자원91-98)·문은영 씨=10월 29일 12시 30분.

*권호철(원자력공학01-05)·박진영 씨=11월 12일 12시 30분.

추억의 창

申 勳 澈(화학공학45-51)星友會 고문

만주·일본에서 돌아온 과우 겨우 20명

파란 연속 … 6·25땐 군복무·학업 '겸업'

필자는 1945년 4월 경성공업전문학교 전기화학과에 입학했다. 해방을 맞아 한 학기를 함께 했던 일본인 학우들은 모두 귀국했고, 남은 우리 한국학생 중에서도 해방직후의 사회 혼란으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일본군 장병 유에 패문에 해방되자 적성 찾아 문과·의과계열로 전과하는 학생들이 있어 10월에 다시 개교했을 때는 전기화학과 학생이 몇 안 돼 결국 같은 사정이던 응용화학과와 병합됐다. 그래도 10여 명에 불과했다. 그 후 일본, 만주 등 외지에서 속속 귀국해온 학생들의 전·편입으로 20여 명 정도가 되었다.

옛 공과대학 공릉동 캠퍼스 전경(左). 원내 필자

4학년이던 해에 6·25전쟁이 터지면서 중공군 참전으로 전황이 급박해져 1·4후퇴하게 되자 공대 학우들은 육군장교, 특히 공군장교로 많이 입대했으며, 일부는 교수들과 함께 영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위탁해 전시연합대학이나 서대신동에 임시 자리잡은 가교사에서 공부하게 됐다. 군 복무 중에도 교수와 연락하며 리포트를 써내는 등 부족한 학점을 어렵게 취득하여 51년 9월, 5회로 졸업했다. 전쟁의 혼란으로 우리 동기생 중에는 6회, 7회 심지어는 11회 졸업생도 있다. 이렇듯 전문부 2년, 학부 4년의 대학시절 6년은 격동의 연속이었다.

당시 일들을 회상하면 잊을 수 없는 많은 추억으로 깊은 감회에 빠진다. 해방되고서야 본래의 한국 이름으로 서로 통성명했던 일, 대학본부에 등록하러 가면 학생들을 막아 선 국대안 반대의 좌익계 학생들이 기마 경찰에 쫓겨 동숭동 하천에 떨어지던 광경, 미국인 엔스테드 초대 총장과 金東一 초대 공대학장 취임반대를 내세운 좌익계 학생들의 동맹휴학 등등. 그때 우리 응용화학과 학우들은 대학본부와는 골목과 담을 사이에 두고 있는 화학실험실에서 羅益英교수님 지도를 받으며 화학분석과 실험으로 묵묵히 공부를 계속 했었다.

48년 암주 공덕리캠퍼스로 이전한 교사까지의 통학은 버스가 드물어 기차로 경춘선 신공덕역을 이용했는데, 강의시간과 기차시간이 맞지 않아 청량리까지 걷는 일이 많았다. 지름길인 철길을 따라 길을 경우, 길이 1백여 미터와 높이 10미터쯤 되는 중랑천 상류 경춘철교의 침목 하나하나를 밟고 건너가다가 중간쯤에서 기차 기적소리라도 들리면 흔비백산하여 이슬아슬하게 뛰박질을 했던 기억이 난다.

해방과 6·25의 격동 속에서 열악한 환경의 대학시절을 보냈지만 우리 동기들은 60~70년대 산업개발의 주역으로 화학비료공업 대단위 석유화학공업단지와 구미 전자공업단지 등 건설에 참여해 우리 나라 산업의 기적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그 대표적 기수는 朴正熙 前대통령의 중화학공업 정책을 총지휘한 吳源哲(前청와대 경제수석)동문이다. 동기는 아니지만 馬景錫(2회·한국엔지니어클럽 명예회장)선배는 화공 엔지니어로서 산업계에 큰 일을 많이 하여 우리 화공 엔지니어링계의 대부 격이다.

우리가 졸업한 50년대에는 국내 산업이 보잘 것 없었고 수입대체산업으로 일어난 제당, 모직과 유리 시멘트공업이 고작이었으나 그 후 화학비료, 석유화학, 전자공업 등이 발달해 이들 대기업에서 기술자로, 경영자로 활동한 동기는 孫達植(제일모직)·薛元吉(대한제당)·金相洙(대한제당)동문과 필자(삼성그룹) 등이 있다. 또 많은 동기들이 대학원으로 진학하거나 미국 유학을 떠나 교수, 국공립연구소 연구원이 됐는데, 趙炳巖(인하대)·朴元圭(영남대)·朴金喆(한양대)·李丙憲(한양대)·池應業(아주대)·鄭衡直(원자력연구소)·洪殷澤(배화여대)동문 등이 있다. 그 외 동기들도 중소기업에서 또는 자영업으로 활동을 했고, 또 미국 유학 후 그 곳 산업계에서 활동한 동문들도 많다.

신 간

벼랑 끝에 몰린 노인

—孔鍾源 지음

중앙일보·조선일보 논설위원, 시니어저널 주필 등을 역임한 孔鍾源(철학 58-62 고려대 의사법학연구소 의래교수)동문이 노인문제를 소재로 다룬 사설들을 모아 엮은 책.

이 책은 소외, 권익 의식, 정책과 제도, 봉사, 의료, 복지 등 노인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거의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이나 정책입안자들에게 필요한 입문서이다. 〈나무귀·값10,000원〉

최신 목재건조학

—鄭希錫 외 6명 共著

모교 농생대 산림과학부 鄭希錫(임학60-64) 교수를 비롯해 임산가공을 전공한 姜琥陽(74-80)·朴正漢(78-82)·李南浩(78-84)·李亨雨(79-83)·姜春遠(83-87)·여환명(86-92)동문이 공동으로 목가구, 악기 및 목질재료 등의 제조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 및 연구자에게 참고가 될 목재건조학을 펴냈다.

이 책은 목재건조의 기초, 목재건조 장치 및 방법을 이해하고 수분관리를 통해 목재 건조수율의 제고, 목재품의 품질 향상 및 목제품의 사용수명 연장 등 건조이점의 최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엮었다. 〈서울대출판부刊·값15,000원〉

Law and Justice in Korea : South and North

—崔鍾庫 著

모교 법대 崔鍾庫(법학66-70) 교수가 최근 남한과 북한의 법체계를 비교 분석한 최초의 영문 학술서 '한국의 법과 정의 : 남과 북'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서구화 이전 한국의 전통 법사상과 사법제도,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의 사법제도, 현대 남북한의 사법제도, 법사상, 법의식, 인권 상황을 소개했다.

또 한국법의 체계와 서구 학계의 한국법 연구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고대 이후 일제강점기까지의 법·재판·사법제도·법사상의 발전을 소개하고 해태상으로 대표되는 한국적 정의의 상징이 서구의 것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있다. 〈서울대출판부刊·값20,000원〉

우리나라 인체기생충 및 의용절지동물의 동물상(fauna)과 개요

—蔡鍾一 著

모교 의대 기생충학교실 蔡鍾一(의학70-76) 교수가 국내외에 보고된 인체 기생충에 관한 자료를 한 권에 담았다.

이 책은 인체기생충학과 인체 감염 기생충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연충류, 원충류, 절지동물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국내 학계에 알려진 기생충을 각종 학술잡지와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조사, 분류했다.

각각의 기생충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발생례, 분포, 주 서식처, 임상증상, 진단 및 치료 방법 등을 기술했다. 〈서울대출판부刊·값7,000원〉

독일견문록

—金永燦 著

연수원, 학생, 주재원 등 다양한 신분으로 8년 가까이 독일에서 생활하며 독일에 관한 다양한 글을 발표해 온 金永燦(경영76-80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장)동문이 쓴 독일 견문록.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에는 독일의 기후에서부터 문화, 인물, 관습,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직접 경험한 독일생활의 면면을 소개했으며, 시스템의 차이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독일의 교육, 교통, 분권화, 복지 등의 측면에서 다뤘다. 또 유럽경제의 중심지로서 독일과 유럽중앙은행 등을 살펴본 후 독일 통일에서 왜 많은 비용이 들게 되었는지를 정책선택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김&정刊·값9,800원〉

공 연

조소연 피아노 독주회

—10월 23일 예술의 전당

독일 유학을 마친 피아니스트 조소연(기악94-98)동문(사진)이 귀국 피아노 독주회를 갖는다.

이날 라벨, 쇼팽, 베토벤, 리스트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 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바리톤 全奉求 독창회

—10월 25일 금호아트홀

경원대 성악과 全奉求(성악64-68)교수가 서울 사간동 금호아트홀에서 독창회를 개최한다.

산길, 나그네, 못잊어, 조약돌, 방자타령, 태백산아 등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선보인다. 〈공연 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동창회보를 읽고

동문들 역량 한 데 모으는 그릇되길

임천에 의사들의 커뮤니케이션 장소인 닥터플라자에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보고 울적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 연합뉴스에 난 기사인데 헤드라인이 '경찰대 불합격자가 서울대 의대 합격'이란다. 이 기사를 보고 한 네티즌이 이런 글을 올렸다.

'경찰대는 1980년 개교해 법학과 60명, 행정학과 60명으로 총1백20명이고 서울대 의대는 명목상 1946년에 개교해 총 1백90명 정원이다. 경찰대는 학비 전액무료이고 기숙사가 제공된다. 서울대 의대는 학비 연간 8백만원이고 기숙사 생활시 연간 6백~8백만원(용돈 포함)이 소요되고 원룸생활시 연간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를 비교하면 6년간 서울대 의대가 1억원 가량 더 소요된다.

경찰대생이 군에 가면 전경대장(24세)이 되고 예편 후 파출소장 경위(27세)가 된다. 서울대 의대생이 군에 가면 군의관 대위(31세)로 예편 후 펠로우를 하면 보통 34세가 된다. 40세에 이르면 경찰대생은 보통 경정에 오르고, 서울대 의대 졸업생은 의대 조교수 혹은 종합병원 과장이 된다. 50세에 이르면 경찰대 졸업생은 총경이 총경이고, 서울대 의대 졸업생은 의대 부교수 혹은 정교수 혹은 종합병원 진료부장이 된다.

그 이후를 확률로 보면 상위 3%인 경우, 경찰대 졸업생 중 4명에서 치안감이 상이 되고 아니면 지방경찰청장 혹은 차장이 돼 관용차에 기사와 비서관이 주어지며 관사와 경비전경이 배치된다. 은이 좋은 최상의 경우 경찰청장(차관급)이 된다. 서울대 의대 졸업생 중 최상위 6명은 서울대 의대 교수나 국립대학교 교수가 되어 인론에 자주 나올 수 있으며 학회 회장을 역임한다.

하위 10%를 비교분석하면 경찰대 졸업생은 경정급에서 끝나는 데 경찰서 과장으로서 연봉 5천만원 정도이고 나와서 법무사 비슷한 일이나 경찰 관련된 회사 일들을 하게 된다. 서울대 의대 졸업생들은 개업의가 되면 하위 30% 정도이고 한 달에 4백~5백만원은 그래도 수입이 있다.'

이 분석의 결론은 중위권과 하위권은 서울대 출신의 의사가 아직은 좋다는 것이었다. 비교적 현실을 잘 반영한 분석인데 서울대 의대 졸업생의 마음으로 인정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만큼 시대의 흐름에서 동떨어져 있었던 탓이었던가? 서울대와 상성과 강남이 동시에 몰락하는 하향 평준화시대이지만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하락이 제일 급격한 것 같아 안타깝다.

집권층에서조차 공공연히 서울대 폐교론 내지 무용론까지 나오는 시점이니 사회적 풍토 자체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더 이상의 사회적 지위하락을 막기 위해 서울대 동문들이 단결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 동창회보가 동문들의 역량을 함께 모으는 그릇이 되길 기대해 본다.

吳 成 一
(의회83-91)
수원 영동
서울산부인과 원장

젊은 동문 모임에 귀 기울였으면…

인터넷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손으로 만져지는 인쇄매체의 매력은 여전하다. 주기적으로 많은 동문들의 크고 작은 활동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동창회보는 이러한 매력에다 보고 읽는 즐거움을 더해 준다.

또한 동창회보를 통해 잘시나마 나의

張 慶 錫
(최대원96 01)
환경대학원동창회
사무장

한 달 생활도 조금은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많은 동분들이 훌륭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하는 생각이 스쳐간다.

그렇기 때문에 동창회보를 받아 보면 항상 동정란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보게 된다. 좋은 소식, 궂은 소식 모두 여러 동문들에게는 의미 있는 소식일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알지 못하는 동문 소식이라도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필자 스스로가 환경대학원동창회 사무장으로 일하기에 환경대학원 동문들의 활동이 소개될 때는 남몰래 자부심을 느끼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 동창회보는 다양한 소식을 통해서 재학생, 동문, 교직원 모두의 다양한 소통의 장이 되고 30만 동문을 묶어 주는 좋은 매체가 된다고 생각한다.

동창회는 자랑스런 동문들의 존재 자체가 좋은 보양이 되어 주고 동문들의 관심과 사랑이 행복이 되고 수두이 되어 성장해 간다. 특히 많은 동문들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소식은 우리 동창회의 자양분이 되어 준다. 그러나 사실 동창회 회사와 동창회 일에 관해서 동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이가 좀 더 들어서 혹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이야기를 간간이 듣게 된다.

그럴 때마다 동창회 활동은 어느 특정한 연령 대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속하는 동문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연령대와 각계의 사회분야에서 일하는 동문들도 골고루 참여해 주십사 하고 말하곤 한다. 그러면서 우리 동창회 역시 여러 동분들의 활동과 목소리를 담아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동문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자 홈페이지와 이메일 뉴스레터 등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동분들의 소식을 발굴해 알리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말해 두고 싶은 것은 매달 우리 환경대학원동창회 소식에도 항상 귀를 기울여주는 친절한 편집부 기자의 고마운 마음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좋은 기사를 써주는 것 외에도 미처 찍지 못한 장면을 촬영하여 멋진 사진으로 만들어 보내주곤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제까지도 그래왔듯이 동창회보가 지속적으로 젊은 동문들과 나이든 동문들, 국내외 동문들의 다양한 활동을 반영하고 모교 교직원과 재학생 그리고 동문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활동과 소식에 귀기울여 주길 기대해 본다.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이사 : 2005년 6월 30일~2005년 7월 18일·일반 : 2005년 6월 28일~2005년 7월 22일〉
원내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회장 林光洙=500만원
△상임부회장 孫一根=100만원

상임이사

△金昊元 IIP동창회장=20만원

평생회비

(이사 50만원) △김창기 사회(85)
△박규원 공대(69) △박원제 의대(60)
△박준형 공대(70) △박태원 공대(73)
△배무남 법대(61) △윤순녕 간호(69)
△이성기 사회(75) △이시윤 법대(54)
△이창옥 공대(72) △이한복 자연(83)
△최창영 공대(64) △황인경 가정(70)
(일반 20만원) △강성목 법대(62)
△강수희 농대(60) △강윤선 문리(59)
△고봉훈 AIP(11) △공석한 공대(80)
△구명철 인문(82) △구본혁 사대(44)
△구정화 인문(83) △권성진 사대(77)
△권태환 문리(59) △길계환 공대(82)
△김경년 치대(80) △김경동 AIP(31)
△김경환 공대(85) △김관규 공대(77)
△김광현 농생(98) △김귀곤 농대(63)
△김기웅 의대(85) △김기정 의대(87)
△김나영 의대(82) △김달수 공대(79)
△김동문 AMP(41) △김만헌 사회(72)
△김병희 GLP(11) △김명환 공대(75)
△김명환 인문(77) △김미금 의대(90)
△김민찬 치대(86) △김민홍 농대(77)
△김성문 치대(73) △김성미 간호(58)
△김성철 농대(70) △김소함 음대(77)
△김승겸 國院(01) △김영호 공대(71)
△김영훈 법대(83) △김용구 문리(49)
△김용진 사대(75) △김 우 의대(01)
△김이근 자연(79) △김인애 약대(99)
△김정순 의대(60) △김정일 GLP(7)
△김정현 인문(84) △김정환 상대(71)
△김제성 법대(95) △김준성 공대(97)
△김창섭 사회(69) △김한수 법대(85)
△김한호 GLP(8) △김형식 GLP(9)
△남재술 GLP(9) △류장우 경영(88)
△류재택 사대(66) △명현국 공대(76)
△문석배 의대(97) △문영소 법대(82)
△문종복 수의(56) △민정기 미대(68)
△박대호 농대(79) △박동표 미대(97)
△박명식 공대(74) △박서호 문리(69)
△박소범 AMP(23) △박승철 大院(65)
△박용배 약대(54) △박원정 인문(01)
△박정규 의대(83) △박종렬 공대(71)
△박종문 공대(82) △박지연 치대(01)
△박지영 가정(87) △박지혜 약대(01)
△박태섭 사대(76) △박현주 미대(87)
△박형규 문리(48) △박혜경 자연(85)
△박호용 농대(76) △방인태 大院(84)
△백준호 법대(93) △사형환 법대(85)
△서동기 공대(88) △서우영 수의(01)
△서태환 경영(73) △성하점 수의(81)
△소재철 ACPM(1) △손대영 경영(77)
△손정민 의대(89) △송동준 문리(56)
△송방헌 인문(95) △송병완 공대(69)
△송인석 치대(01) △신태성 GLP(4)
△신현길 공대(65) △심용운 공대(95)
△안글렌 GLP(11) △안순호 공대(78)
△안의환 GLP(11) △양성철 문리(58)
△양종식 공대(68) △염원서 사회(95)
△오앙수 음대(98) △유경연 경영(95)
△유만조 상대(57) △윤진산 공대(69)
△이 철 사회(69) △이갑수 상대(51)
△이경서 공대(96) △이공우 HPM(5)
△이광희 공대(55) △이기문 문리(49)
△이면기 농대(64) △이명호 IIP(3)
△이병규 법대(89) △이병철 문리(56)
△이병필 사대(88) △이병훈 사회(78)
△이상옥 법대(00) △이상원 미대(97)
△이상철 문리(69) △이상호 농대(67)
△이상훈 사회(99) △이성구 사대(70)
△이섬욱 자연(81) △이용욱 공대(93)
△이윤경 의대(89) △이윤종 의대(87)
△이윤태 공대(79) △이은용 자연(72)
△이은정 생활(00) △이인자 사대(71)
△이임택 공대(61) △이장수 공대(85)
△이재원 문리(67) △이재일 공대(71)
△이재철 공대(95) △이종국 공대(87)
△이준관 공대(95) △이창구 법대(66)
△이창우 농대(75) △이태훈 법대(58)
△이호영 인문(81) △이효석 공대(99)
△임경보 SGS(1) △임종호 농대(74)
△인주원 環院(03) △인치주 미대(80)
△전병대 공대(68) △전철순 법대(54)
△전태옥 사대(72) △정교관 상대(57)
△정승윤 법대(87) △정연호 공대(68)
△정윤석 의대(73) △정운진 공대(73)
△정의석 의대(01) △정지선 음대(91)
△정진화 가정(83) △정창시 상대(70)
△정태상 공대(71) △정태성 농대(84)
△정희연 미대(82) △조건북 AIP(28)
△조관희 사회(83) △조영애 약대(82)
△조영임 음대(94) △조진형 문리(64)
△주호군 GLP(11) △지상술 자연(87)
△최명걸 상대(56) △최병천 공대(63)
△최종원 AIC(19) △하정실 자연(82)
△한미영 AIP(32) △한상호 GLP(8)
△한석구 ACPM(1) △한석진 사회(98)
△한은주 농생(01) △한이헌 상대(64)
△한인규 농대(52) △한준구 의대(76)
△한창호 법대(72) △허 욱 치대(95)
△현근택 농생(90) △현준용 인문(88)
△현하수 상대(59) △홍기석 사회(84)
△홍정의 사회(91) △홍준선 음대(58)
△홍지민 사회(00) △황남주 자연(87)
△황산성 법대(64) △황성필 농생(88)
△황수경 공대(82) △황희영 음대(72)

이 사

◆경영대 △김선구(73)
◆공대 △김도심(52) △김지섭(54) △김봉원(46)
◆농대 △송재관(52) △우용률(66) △이규승(67) △장정수(64)
◆문리대 △박성훈(69) △서재만(59) △이창복(58) △조성욱(50)
◆법대 △강구현(70) △김귀동(70) △박무용(64) △변학남(52) △서원태(67) △안경환(66) △이재창(56) △이천수(61) △최순철(55)
◆사대 △민재익(50) △양금석(54)
◆상대 △강정구(61) △김덕기(52) △김영석(56) △김웅태(53) △서청원(64) △손희권(46) △홍승희(41)
◆생활대 △유효선(74) △조은자(61)
◆수의대 △어중원(65) △윤화중(54) △이문한(66)
◆약대 △신화용(46) △우용근(54) △이종규(67) △한상후(64)
◆의대 △고재균(50) △김병국(64) △윤택구(51) △이항진(44) △장성근(71) △주근원(43)
◆치대 △김상옥(67) △변영남(63) △이배진(59) △정원용(52) △하상원(64)
◆경대원 △유진성(66)
◆행대원 △우정복(86)

일 반

◆인문대 △구성환(95) △김대현(98) △김성호(87) △김완식(82) △김화정(97) △박정욱(98) △박진형(91) △방그레(01) △서형배(74) △설 한(75) △유희성(01) △이명우(73) △이승섭(85) △이유희(00) △이현정(02) △이홍구(84) △임준규(85) △정혜영(88) △조철원(76) △최서문(94) △하영춘(82)
◆사회대 △고영일(84) △고영진(97) △곽순석(01) △김부성(73) △김수호(69) △김지범(84) △김재형(97) △김철진(81) △김택수(83) △김현종(89) △김현철(83) △남상일(96) △노장현(81) △방진욱(91) △신영기(96) △연규치(87) △오종협(71) △유병서(89) △유혜린(01) △윤제근(78) △이기윤(88) △이병성(87) △이영진(91) △이정준(97) △이현태(96) △임 천(75) △임재호(94) △정재호(73) △정지웅(98) △정충현(01) △정홍순(92) △조영희(94) △차용호(75) △최외구(81) △최원신(92) △황영수(77)
◆자연대 △강민헌(84) △강인숙(83) △구상모(00) △김욱래(98) △김준식(91) △노창균(98) △민정현(01) △박장서(74) △서민아(01) △양용성(86) △유용덕(82) △이성곤(99) △이승근(96) △이용학(74) △이창복(68) △전승준(74) △정민경(00) △조재민(90) △조정길(84) △조현진(01) △진 민(78)
◆간호대 △강명화(84) △김검래(61) △김경희(83) △박미정(75) △박양자(60) △백형자(78) △정숙영(59) △조동란(66) △최영숙(88)
◆경영대 △구근회(01) △김의준(72) △김재일(72) △김건일(98) △박원규(98) △박재근(87) △신화섭(84) △우성권(75) △이동원(89) △이병창(73) △이성훈(72) △이인환(79) △이정구(79) △하현봉(82)
◆공대 △강무치(68) △공정현(85) △구자현(99) △구장회(59) △권용수(81) △권해욱(73) △권혁일(96) △권혁중(88) △김 영(52) △김기엽(77) △김도훈(93) △김동구(70) △김민관(99) △김병국(96) △김봉흡(43) △김상돈(56) △김상혁(95) △김석수(71) △김선준(76) △김성환(66) △김양효(98) △김영호(78) △김용기(74) △김용원(70) △김원배(69) △김은규(77) △김재민(01) △김재원(61) △김재홍(99) △김정욱(55) △김종각(59) △김종범(80) △김준모(89) △김진영(68) △김천구(65) △김판수(53) △김하나(01) △김한석(77) △김호수(63) △남광문(61) △남기형(86) △노태천(69) △류 훈(83) △류명선(84) △문정호(69) △문창욱(64) △문홍조(54) △민철기(56) △박 순(74) △박기병(74) △박병화(67) △박석현(67) △박성호(96) △박승일(81) △박영희(57) △박용명(84) △박종률(75) △박종후(95) △박형순(60) △배기한(81) △배노천(73) △백상엽(66) △백원필(78) △변수근(57) △서성기(83) △서연신(93) △서영호(82) △서우원(61) △성운제(00) △송부호(61) △송진억(85) △송춘영(67) △송효성(71) △신광균(66) △신동민(98) △심재성(93) △안 준(96) △안인신(54) △오주환(92) △오창수(52)

△위성철(97) △유영흠(68) △윤남하(50)
△윤형돈(94) △이병수(57) △이범일(82)
△이봉오(58) △이세준(84) △이수목(75)
△이재명(98) △이지범(97) △이종훈(53)
△이주선(64) △이창순(96) △이철호(79)
△이태현(86) △이필상(84) △이헌명(73)
△이호경(76) △이희문(52) △임창환(95)
△장석열(85) △장재우(93) △정원배(59)
△정태영(52) △정태증(48) △정해종(66)
△조광제(91) △조남산(63) △조덕상(66)
△조득호(66) △조부현(73) △조용환(60)
△조장하(57) △조재현(75) △조춘식(70)
△채수윤(88) △천성대(66) △최규형(76)
△최병우(68) △최시정(55) △최용태(68)
△최원석(88) △최재순(90) △추선엽(97)
△하빈기(03) △하태균(86) △한상권(01)
△홍성하(77) △홍영표(55) △홍재호(59)
△황인준(95) △황정하(72)

◆농대 △강경하(74) △고동희(66)
△고두한(63) △곽은주(97) △권상대(61)
△김경흠(93) △김남철(82) △김남현(74)
△김영식(66) △김용기(84) △김용기(86)
△김윤경(70) △김인식(64) △김재영(94)
△김종희(01) △김태곤(01) △문종렬(57)
△문평식(62) △박경호(84) △박만근(55)
△박성언(01) △박종효(58) △박형욱(96)
△백양빈(58) △부경생(60) △서형원(86)
△송석준(50) △양성용(73) △우수정(84)
△유문일(66) △유병빈(54) △이기찬(51)
△이병진(62) △이병호(82) △이상현(77)
△이수홍(64) △이순혁(59) △이영기(89)
△이영치(61) △이완렬(55) △이용득(53)
△이우진(86) △이재충(84) △이정원(70)
△이정호(78) △이종웅(72) △이태희(93)
△이풍우(56) △이호준(68) △이희수(80)
△임근영(91) △임헌식(01) △장기상(01)
△전우방(55) △전현기(64) △정경신(55)
△정을규(61) △조새구(83) △조준기(54)
△조진태(54) △주재홍(48) △최유지(97)
△한규근(65) △한기문(94) △한기학(52)
△한상찬(59) △현봉일(94) △홍석헌(77)

◆문리대 △강세원(56) △김근수(63)
△김기동(65) △김남헌(66) △김대전(59)
△김동진(62) △김성익(64) △김영목(67)
△김정환(61) △김형연(66) △남기홍(67)
△노평식(54) △박금자(66) △박두일(52)
△박무병(61) △박정무(59) △배우곤(59)
△백봉태(70) △백환기(61) △변광수(65)
△성기훈(60) △성낙헌(69) △신금호(65)
△신현국(64) △심상걸(58) △안길남(61)
△안원태(52) △안재헌(67) △안표순(52)
△양정섭(47) △오상훈(70) △유동진(56)
△유희근(64) △유정일(70) △이동우(55)
△이병국(69) △이재현(56) △이지영(67)
△이진희(64) △정봉택(50) △조 상(70)
△조병한(65) △최경수(69) △최동식(62)
△허종덕(63)

◆미대 △강정원(91) △강호승(87)
△곽진수(77) △김신희(81) △김희춘(62)
△문주선(01) △민병목(55) △박상민(61)
△심차순(67) △윤기림(99) △윤영화(84)
△이경하(00) △이성용(98) △임상진(54)
△성상원(58) △최명애(70) △한승구(00)

◆법대 △강 성(85) △구연보(83)
△김 신(76) △김광석(56) △김두홍(00)
△김선현(58) △김영삼(61) △김윤희(55)
△김재춘(56) △김주영(83) △김중곤(60)
△김타범(81) △김해신(57) △김희종(79)
△노순일(77) △문병호(66) △박교선(82)
△박대준(82) △박봉규(67) △박상렬(45)
△박상우(75) △박태경(81) △백 린(59)
△백광균(01) △변충근(56) △변희찬(78)
△손태호(75) △송민호(97) △신완수(54)
△안동호(49) △양환정(85) △염정훈(49)
△오세헌(78) △오영표(85) △원길연(85)
△원종배(94) △유홍섭(78) △이광수(80)
△이균섭(55) △이근관(82) △이범재(58)
△이석봉(49) △이정인(92) △이준상(43)
△이태식(57) △이현종(87) △이홍훈(65)
△임채규(69) △전완수(85) △정다운(99)
△정순철(85) △조승곤(70) △조정철(81)
△조한창(83) △주승민(00) △지원훈(61)
△최광태(71) △최영헌(84) △한봉수(49)
△홍명선(55) △홍종호(59) △홍진영(00)
△황선당(54)

◆사대 △강순규(76) △권태원(63)
△김계언(68) △김민정(82) △김병식(70)
△김석원(78) △김영국(67) △김종희(77)
△나민주(85) △만영오(65) △민정옥(41)
△박 재(44) △박동근(62) △박수일(61)
△박제동(70) △박찬변(70) △박창성(73)
△박현화(85) △방영선(79) △서문철(72)
△선혜윤(96) △손상갑(75) △송민호(01)
△송연귀(51) △신웅철(67) △양승희(87)
△염도균(59) △유규태(65) △윤덕성(44)
△이날호(46) △이동호(59) △이문자(63)
△이미숙(80) △이상락(67) △이석천(64)
△이승우(61) △이이연(01) △이오봉(61)
△이정록(67) △전병헌(52) △정덕자(69)
△정만영(53) △조경오(75) △조두신(60)
△조서형(59) △최명진(65) △최윤종(57)
△최정윤(89) △추건이(58) △홍성관(76)

◆상대 △강응선(67) △김규식(54)
△김석근(61) △김영성(70) △김종일(55)
△박영철(57) △박용희(53) △박웅서(57)
△서홍교(63) △송형준(56) △신정순(54)
△양재국(50) △엄치섭(53) △유경선(56)
△유경현(58) △유평희(57) △이명기(59)
△이성재(53) △이승호(56) △이종렬(49)
△이충세(51) △이태종(50) △장운문(65)
△주 일(50) △최문환(53) △최병호(49)
△최제현(49) △최창욱(68) △하기주(59)
△한도형(69)

◆생활대 △김성진(69) △성현경(76)
△이성란(83) △임화재(83) △조정자(61)
△표은경(78)

◆수의대 △강정택(97) △권혁준(88)
△김영훈(81) △안영득(60) △안정모(73)
△여헌수(54) △윤동식(57) △이강문(60)
△이병묵(75) △이상인(82) △정의조(64)
△조충호(49) △황선영(01)

◆약대 △강수철(59) △권혜나(01)
△김병규(68) △김병식(52) △김성진(52)
△김영길(61) △김용호(58) △김재수(60)
△김지영(99) △박정식(57) △송희성(60)
△오병무(62) △원희목(73) △이성완(63)
△이인순(70) △이재철(72) △이해돈(68)
△정기원(92) △정연진(69) △채영주(52)
△최동재(78) △최혜원(67) △탁금자(51)
△편승범(50) △편창범(49) △한진호(59)
△허재녕(01)

◆음대 △상평숙(54) △김규만(93)
△김성남(47) △김순옥(73) △김영숙(55)
△박신영(96) △박정자(60) △신용란(70)
△윤명순(79) △이윤영(57) △최구혜(61)
△최눈진(73) △최지원(01) △한민숙(63)
△홍부미자(60)

◆의대 △김 명(01) △김경일(82)
△김민이(96) △김성구(58) △류승무(84)
△문정빈(91) △박성제(91) △박성철(01)
△서정주(94) △서환조(60) △신동주(78)
△안강모(83) △안병완(71) △양희우(63)
△엄원호(61) △이승남(76) △이재식(81)
△이정길(63) △이춘식(61) △이혜원(01)
△이홍기(88) △임재인(96) △정항보(81)
△최희옥(51) △한원석(93) △허우진(01)
△홍순원(49) △홍준혁(86)

◆치대 △김공배(58) △김광수(73)
△김성은(86) △김성종(67) △김시영(00)
△김유진(77) △김종화(99) △김창경(01)
△문일환(65) △박기헌(61) △박기호(54)
△박성보(58) △박수란(01) △박연천(72)
△박태수(64) △신용환(58) △심형섭(93)
△안병관(52) △오세웅(90) △유태영(61)
△이갑승(74) △이대관(74) △이민영(58)
△이선복(70) △이성혁(91) △이인창(60)
△이장훈(57) △이지화(61) △임병서(45)
△임재석(68) △장동재(79) △전민용(84)
△전혜림(85) △정유철(78) △주광섭(73)
△최인선(82) △함병도(75) △허만욱(58)
△홍정임(87)

◆대학원 △유장훈(86) △이정주(49)
△이태동(81)

◆경대원 △김태영(92) △박영휘(90)
△배무환(68) △백대기(71) △손영수(68)
△양희석(86)

◆교대원 △황현익(65)

◆보대원 △이영민(70)

◆신대원 △정대수(70)

◆행대원 △강성원(68) △김경열(61)
△김용호(81) △서일수(67) △서재관(66)
△소중영(62) △신황용(96) △이병길(83)
△이상수(83)

◆환대원 △박경자(76) △정양희(79)
△주윤식(72)

◆AMP △권석우(15) △김광식(38)
△김봉규(20) △성백환(36) △신동원(44)
△염수한(10) △우상우(18) △유태영(45)
△윤웅하(58) △윤장수(28) △윤태하(34)
△이 석(55) △이강남(44) △이근철(50)
△이병성(2) △이상갑(25) △이상구(51)
△이십석(58) △임종순(54) △장명웅(40)
△정길연(38) △정현일(42) △조희재(37)
△진증배(33) △한형수(47) △황규홍(57)

◆AIP △박건차(16) △신정식(13)
△오 현(5) △유은목(6) △윤정현(21)
△이기영(25) △이덕영(23) △이명래(19)
△이태희(21) △조병오(17) △채대석(15)
△허만일(32) △황혜진(22)

◆ACAD △강기원(14) △강희산(44)
△김호연(11) △박명서(27) △박용임(43)
△박종서(54) △박찬국(54) △오광협(37)
△이석봉(2) △진인권(28)

◆ABP △김선제(9) △김현운(20)
△오상훈(13) △이관현(19) △이관철(3)
△허 영(14)

◆SGS △김동일(12) △김종호(4)
△정명교(9) △정평화(6)

◆CHCN △김미아(9)

◆APC △서정설(6) △신관순(6)
△이덕훈(9)

◆HPM △박호영(14) △방금석(2)
△전영숙(5) △조재의(12)

◆AIC △김종원(2) △김택곤(13)
△서장원(15) △왕진원(11) △조능룡(1)

◆AMPFRI △김기만(15) △박재원(2)
△장석철(5) △조형찬(11) △최서용(14)
△최주순(11) △황재웅(7)

◆ACPMP △이봉부(1) △이준근(1)

◆IIP △김종준(2) △제갈영일(1)
△조윤숙(1)

◆GLP △강대구(9) △권순한(5)
△권오성(2) △김강호(4) △김광호(7)
△김성민(9) △김옥정(10) △민병호(4)
△박창래(6) △배호진(9) △안재화(10)
△엄용섭(4) △윤영환(6) △이상필(10)
△이춘만(5) △이해민(2) △이형길(9)
△임광순(7) △임노원(10) △장윤조(9)
△전기새(4) △조규철(10)

분 담 금

◆호주 시드니지부 500$

(지난 4월호(제325호)에 게재된 분담금 375,000원은 호주 시드니지부가 아닌 멜버른지부로 정정합니다.)

8 월 계 :	29,215,000원
평생회비 :	45,482,400원
입 회 비 :	2,360,000원
총 계 :	1,025,681,474원